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 문화에 물 들어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진리에 굳건히 서서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4월 28일 (토) 제 167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트럼프식 왜곡된 복음주의 변종 척결!”

#### 워싱턴포스트, 시카고 휘튼대학 복음주의진영 탐 리더 컨퍼런스 보도

구글 창에 “복음주의”라고 입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정치 이야기들과 함께 변영주의식 복음 소개들이 주종을 이룬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 기이할 정도로 변형된 변종 복음주의 모습이다. 마치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레함이나 리버티 대학 총장 제리 팔웰 Jr. 그리고 텍사스 대형교회 담임 로버트 제프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고 마이크 펜스가 이끄는 행정부야말로 과거의 미국

을 재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라고까지 공공연하게 말한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이후 정치와 연관돼 훼손되고 탈색된 복음주의의 진정한 ‘영혼’과 미래 준비를 위해,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리더 50명 이상이 초청을 받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카고 휘튼 대학에 모였다(Dozens of evangelical leaders meet to discuss how Trump era has unleashed ‘grotesque caricature’ of their faith).



교회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목사들이 기도해주고 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이자, 이번 회의를 주최한 사람들 중 한 명인 대릴 보크는 “우리의 신학이 삶의 중심 관심사와 우리의 정치적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기 위한 시도”가 바로 이번 모임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인 팀 켈러와 뉴욕시 대가처치 목사 A. R 버나드 같은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중도 좌파계 지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들도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풀러신학교 총장 마크 래버톤, 웨슬리안교회의 전 감리사 조 앤 리움,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로드 알렉산더 감독, 워튼칼리지의 에드 스텐저, 크리스챤리티 투데이의 해럴드 스미스, 세계구제기금(World Relief)의 제니 양, 전미 라틴계 복음주의연합의 가브리엘 살구에로 등이 모였다.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등장 이후로, 가장 심각한 위기감을 겪게 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미국 개신교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주류교단으로 구분되어 흘러왔다. 가장 우측이 근본주의, 그리고 좌측이 주류교단, 중간에 복음주의가 자리잡아왔다. 물론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우익 진영이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신앙함수”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미디어에 등장할 정도로, 정치인들의 신앙 유무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 들어 복음주의자들이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바로 복음주의가 어느새 ‘인종주의-백인우월주의’

와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기미로 가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성향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변종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모임에 모인 복음주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주의의 진정한 정의를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에 논의의 거듭했다. 전국 복음주의 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에 따르면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진리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1)성경은 내가 믿는 것들의 최고의 권위이다. 2)개인적으로 비 크리스천들에게 예

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죄의 형벌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다. 4)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원과 백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행정부 참여에 관한 언론의 주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용어의 신학적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를 단순히 친 트럼프 성향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자와 친 트럼프 크리스천과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 질문만 잘해도 관계 얻을 수 있다!

#### 리더십저널, 전 CNN 앵커 프랭크 세스노의 ‘가교형 질문’ 원리 소개

CNN의 앵커이자 인터뷰어로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폴린 파월 등 저명인사들의 인터뷰를 도맡아 하며 수십 년간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프랭크 세스노(Frank Sesno, 현 조지워싱턴대학 저널리즘 교수)는 질문만으로도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가교형 질문’이다. 이 질문의 목적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가교형 질문을 잘 쓰면 정보를 끌어내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의도와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가교형 질문은 동료, 고객, 이웃, 부모, 자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말을 달거나 원한을 품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작정인 어떤 ‘용의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다.

공감대 형성... 편안함과 포용적으로  
문제본질 파악, 비판 질문보다 대화 유도  
먼저 불만 고충 묻고, 긍정과 인정

가교형 질문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리하게 계산된 질문이다. 나도 인터뷰 상대가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고집하거나, 미디어를 의심하거나, 추문이나 비리에 연루돼 있을 때 무의식중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종종 있다. 그들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선뜻 정보를 주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사람이 더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단 중요한 논점에 대한 이야기나 깔끄러운 질문은 뒤로 미루고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일 그때 내가 이 질문법을 더 잘 알았다면, 그리고 이 질문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더 잘 알았다면 그런 인터뷰에서 좀 더 많은 특종과 이야기를 캐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교형 질문의 원칙은 모두 한 가지 명료한 목표에 맞춰져 있다. 바로 상대방의 닫힌 입을 여는 것이다. 그 입이 열릴 가능성을 키우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밴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pelmail@hotmail.com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14면  
GMS브라질신학교...  
강성철 선교사

##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현수막,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 죄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하는가?

## 뉴스위크, “지옥은 없다” 교황 발언에 대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지옥 비교 보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할 뿐”이라고 말했다는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 기사와 관련, 이 발언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 신문 라레푸블리카는 지난 3월 29일 이 신문 창립자인 에우제니오 스칼파리가 바티칸에서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무신론자인 스칼파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사악한 영혼은 어디로 가고 그들은 어디에서 처벌 받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교황은 “그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참회한 영혼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을 응시하는 이들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 하지만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라진다”고 말했다고 스칼파리는 전했다.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 한 이 인터뷰 내용이 큰 논란을 낳자 교황청은 즉시 해명했다. 교황청은 “부활절을 맞아 이뤄진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 스칼파리와 정식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교황이 한 말이 아니라 스칼파리의 생각을 담아 재구성한 글”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그 기사를 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은 종교가 지옥에 관해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됐다. 미국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3대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내세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본다 (IS HELL REAL? THIS IS WHAT CHRISTIANS, JEWS AND MUSLIMS SAY ABOUT THE AFTERLIFE).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따른다. 그러나 죽음은 복잡한 주제로 다루진다. 특히 우리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해석 여부에 따라 복잡하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문답에 따르면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서로 갈리는 것이며,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아니며 그 행실대로 상이나 벌을 받고, 우리가 받는 영복과 영벌은 죽는 순간에 결정된다. 아무 보속할 것 없는 영혼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바로 지옥에 내리고, 소죄나 후 보속할 죄범이 남아 있는 영혼은 연옥으로 간다.



보티첼리가 그린 단테의 '신곡' 삽화 중 '지옥'

지옥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설교를 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정그러운 거미를 불길 위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혐오하시면서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서서 여러분을 지옥 불구덩이 위에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보다 천 배나 더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한 무서운 위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노의 불이 가득한 큰 용광로입니다.”

## 카톨릭과 유대교, 지옥보다 연옥이나 스올 강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 J. 에드워즈의 지옥설교 사라지고 치유요법 각광

유대교에선 사람이 죽은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구약성서는 ‘스올’을 얘기한다. ‘스올’이라는 뜻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비슷한 ‘스올’은 무덤처럼 어둡고 깊은 구렁이(지하 음부)로 묘사된다. 신약성경의 지옥과 달리 ‘스올’은 사람들이 벌 받는 곳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구약의 전도서와 욥기는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스올’로 내려간다고 말한다.

유대교는 에덴 낙원도 묘사한다.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가는 곳이다. 유대교 신비주의에 따르면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은 ‘게히놈’으로 간다. 그곳에서 12개월 동안 죄를 뉘우친 후 에덴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스올’과 ‘게히놈’ 둘 다 영혼이 죄를 뉘우치고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장소를 의미

한다. 한편 이슬람 신자는 기독교의 천당과 지옥 개념과 더 가까운 내세를 믿는다. 그들은 알라가 심판의 날을 결정할 때까지 무덤에 머문다고 믿는다. 심판의 날 후엔 생전에 의인이었던 사람은 ‘잔나’로 들어간다. 천국을 의미하는 ‘잔나’는 유대교의 에덴 낙원처럼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생전에 악인이었던 사람의 영혼은 ‘자한남’으로 간다. 기독교의 지옥과 같은 ‘자한남’은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이 고통당하는 불구덩이로 묘사된다.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자.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신학자 겸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 심판 설교를 많이 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에 붙잡힌 죄인들”(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설교는 미국 설교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중의 하나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킬로슨(Tillotson)이 지옥은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사실상 지옥을 부인해서 영국과 미국의 많은 교인들에게

나... 여러분은 가는 실로 붙잡혀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고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실은 불에 그슬려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주시길 종보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런 설교를 듣고 벌벌 떨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많다.

(3면으로계속)



### 시론

## 성경을 살아내는 부모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우리 부부가 즐겨보는 TV프로그램에 ‘복면가왕’이 있다. 대개 가수들이 자신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부를 수 있는 선곡을 하는데다가, 노래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즐겁다. 전문 가수인 사람은 물론이지만 가수가 아닌 사람들마저 어찌면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감탄한다. 저 사람이 누굴까 복면을 벗기까지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호기심을 더한다. 음악평론가들의 예리한 분석도 재미있고 엉뚱한 헛다리 집기가 즐거움을 더한다. 무엇보다 반전의 재미가 있다. 전혀 외국인이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유명 헤비메탈 밴드 스틸하트의 밀첸코 마티예비치가 아깝게 패해 준우승까지 가서 복면을 벗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외에도 유능한 MC가 “바로오오오...”를 외칠 때면 숨이 막힐 듯 TV에 시선을 강탈당하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이런 프로그램을 창작해냈다는 자체가 놀랍고 이런 인기가 부럽다.

지금 교회는 인기가 없다. 믿지 않는 이들은 교회들이 제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냉소적인 미소만을 띄울 뿐 감동하지 않는 시대다. 목회자들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새신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강단의 권위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부흥회를 열어도 소수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참석해줄 뿐이어서 이런 부흥회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각종 비리, 세습 등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더 이상 상투적인 전도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서 짜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교리에 대해 심각하여 교리 논쟁을 하는 이들을 한심한 눈초리로 빼박하게 바라본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대부분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살아내는 방법 외에 무엇으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까? 신자들이 자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성경을 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내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이 시대를 건질 수 있다. 하지만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는 것은 말은 쉬워도 결코 만만치 않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천재 조반니 파피니(1881-1956)는 이탈리아의 소설가 겸 평론가로 수다한 문학운동을 참가했고 여러 잡지를 창간하여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여러 무신론적인 작품을 발표하며 그의 천재성을 입증하였다. 그가 30대에 무서운 병에 걸린다.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집에 들러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이면 낫는다고 말해준다.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 요리를 해서 먹였다. 놀랍게도 그 고기를 먹고는 파피니가 차츰 병이 낫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에 먹었던 그 고기를 다시 먹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 살을 베다가 그만 동맥을 끊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외출에서 돌아온 파피니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오열하며 울부짖는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그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나 같은 죄 많은 여인도 살고 피를 주면 생명을 살린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감동으로 그는 평생 신봉하던 무신론을 버리고 신앙을 받아들인다. 그가 40세가 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작품을 쓴다.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 이야기’ 파피니는 어머니에게서 성경의 삶을 살아낸 모습을 본 것이다.

파피니의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에 목숨을 걸었고 바쳤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온다.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다. 우리는 평생 가정을 떠날 수 없다. 우리가 가정을 떠날지라도 가정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다. 순기능의 가정에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만들어진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다 문제가 생기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가정의 역기능성은 선택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가 떠난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지만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그 자리를 메울 때 아이들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 부모 중 누구라도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숨을 건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다.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들을 향한 소원을 알게 하라. 자녀로 부모의 삶 속에서 구현된 성경을 보게 하라.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살리소서!”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 (대 표) (323) 865-9025 (광고국)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학과 ●

|     |         |    |            |
|-----|---------|----|------------|
| 대학부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463-7163

● 특 전 ●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트럼프식 왜곡된 복음주의 변종 척결!”

(1면에서 계속)

“복음주의자들의 로잔운동” 명예회장이자 이번 회의의 주최자 중 한 사람인 더그 버드셀은 이번 모임에서 트럼프와 정치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식 복음주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됐다고 말한다. 그는 또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때, 전도 또는 복음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기교한 캐리커처로 이해되기도 한다”며, 복음주의를 복음주의답게 지키고 알리는 것이 이번 모임의 쟁점이 됐다고 말한다. 팀 켈러 목사는 목회적 관점

에서, 이번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한다. “믿음, 하나님, 죄, 은혜, 우상 숭배는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현실인데 현재, 사람들은 종교, 기독교를 정치에 관련해서만 이해한다”며,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오해의 장벽들을 뚫고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한다. 또 켈러 목사는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이 신앙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8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사회가 진보 성향의 외길 노선으로만 달

려갔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와 여성의 낙태 자유가 한마디로,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성애자들이나 여성의 낙태나 피임 허용 여부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건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는 “도덕 불감증”과 그를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만의 세상처럼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이번 모임에 참석한 파라치치 측 선교 단체 리더들의 고충은 바로 단체들의 생존이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나이 든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선교 단체들의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복음주의

를 정치적 성향이나 트럼프 지지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복음주의의 변종을 척결하고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복음주의는 어느새 젊은 세대에게 도덕불감증에 걸린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변해버렸다. 따라서 백인만이 우월하기에 타 인종, 특히 흑인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공포”와 “거리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문제들을 복음주의자들은 강단에서, 그리고 목회 사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 질문만 잘해도 관계 얻을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한다. 내가 무엇을 좇고 있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둔다. 목표물을 명심하고 집중한다. ○ 뇌관을 피해야 한다.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나오게 하는 비판이나 질문부터 꺼내지 않는다. 대신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통

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다가서야 한다. ○ 추궁하지 말고 질문한다. 일단 상대방의 불만이나 고충을 물어본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무엇이 부당한지도 확인한 후에 이유와 동기를 묻는다. ○ 긍정하고 인정해 준다. 다리를 건너게 하겠다고 베풀 때 끝에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답변

을 듣고 배경을 알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상대방을 잘 달래면서 길을 인도해야 하며, 보상을 제공하고, 다리를 건너게 할 새길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므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교형 질문은 사람들이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포용적인 정자가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잘 통한다. 이런 효과를

내려면 물음표가 있든 없든 질문을 통해 방금 들은 말이나 표현을 재사용하고, 진입점을 포착하고, 상대방의 난해하거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인정해주면 된다. 가교는 한 번에 한 조각씩, 한 질문씩 천천히 건설해야 한다. 가교를 만들자면 시간이 걸리고 도중에 난관이 생길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 신중하게 대화의 진행 방향을 계획해야 한다.

### 죄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하는가?

(2면에서 계속)

지옥 심판 설교가 잠든 심령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옥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지옥 심판을 말할으로써 잠든 영혼을 깨울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주의자들이 한때 가장 위대한 설교로 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의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1741년)은 그자, 설교를 위한 참고자료처럼 여겨지고 있다. 불과 30, 4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죽음의 결과에 관한 설교가 흔했지만 지금은 복음주의 목회자들도 ‘불과 유황’의 메시지보다 ‘부드럽고 정다운’ 이미지를 선호한다. 2011년, 복음주의자로 알려졌던 롭 벨 목사는 그의 책 ‘사랑이 이긴다: 천국, 지옥,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책(A Book About Heaven, Hell, and the Fate of Every Person Who Ever

Lived)’에서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요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에 있으며, 따

그의 책은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복음주의 목회자가 ‘지옥이 없다’라는 과격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등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회자

는 이유 중 하나가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무식감과 죄책감을 주기 때문이기에 에드워즈식 설교가 요즘은 먹혀들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그 당시 R. C. 스프라울 박사는 “심판과 법, 심판장 하나님이 없다면 복음도 필요 없다”며 “지옥이 없다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왜 필요하나”고 강력하게 죄의 삶은 사망이며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결국 미국교회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성경과 교리를 떠나 치료 요법을 강단에서 설교했으며, 특히 죄에 대한 각성이나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치료 요법으로부터 격려하는 말들만 늘어놓는 설교로 변화해왔는데, 많은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며 회개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설교하지 않는 추세가 당연히 여겨지고 있기에, 교황을 비롯한 유명 목회자들이 공공연하게 지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고통 받게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들은 전라적인 공포감 조성은 현대인에게 어필 못한다며 그리스도에 무관심한 이들을 이끌더 나은 방법으로 친근하게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회교를 싫어하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주변사람들(중)

오래전 필자를 찾아온 집사가 있었다. 충신교회 출석 이후 사업이 변창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실현 단계에 있는데 기도해 달라서 부탁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만간 제가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다시 연락 올리겠습니다”라며 헤어졌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 예배 후 계단에서 그를 만났다. “요즘 회사는 어떨까요?” “아, 예,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턱 꼭 쏘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는 쓸 생각을 못하고 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바르게 말해야 하고 그 말을 책임져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목사의 실언이 잦아지면 신뢰가 깨진다. 신뢰가 흔들리면 성공 목회가 어렵고 목사의 인격이 의심받게 된다. 입을 다물고 살 수 없지만 허세, 허세, 허언이 많아질수록 목회자의 입지는 허약해진다. 목사 주변에는 긍정과 부정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무관심의 사람들도 적지 않다. 출석과 예배로 만족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라도 발발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더 멀리 물러서는 사람들, 그들은 주연도 조연도 아닌 관객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중심 잡기가 어렵고 추진력이 부실해진다. 그들을 교회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훈련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다. 수평이동 숫자가 많아지면서 무관심의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평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성 이동에 길든 사람들도 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탁월한 접근법을 동원해 다가서는 목회자들, 그러나 그들은 이동성 고기압처럼 여차하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목회자 주변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오래전 주일 오전, 교육관 복도에서 K와 A 장로가 사적인 감정폭발로 참지 못해 맥살잡이를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찬양대원, 교사들, 아이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필자는 두 사람을 불러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리게 한 후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 일을 더 크게 확대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K장로가 정년으로 사무장로직을 은퇴하게 되었고 당회는 원로장로 추대를 결의해야 했다. 그런데 당회원 전원이 K장로의 원로장로 추대를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필자에게 그 결정을 알렸다. 원로장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당회장인 필자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원로장로나 은퇴장로의 차이가 큰 것 아니던 당사자, 그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교인들이 그를 바라볼 시선들...

한 주간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다음 주일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당회원들을 설득했다. 요지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흠을 문제 삼으면 떼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K장로 역시 허물이 많고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로장로 추대를 비토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 선례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동의회에 추대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며 간곡하게 호소했다. 모든 당회원이 “듣고 보니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라며 공동의회에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거쳐 원로장로로 추대했다.

그 이후 모든 당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너그러운 일에 동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까지 감사하든지 죄송하다든지 자기표현을 단 한번도 한 일이 없다. 그런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바울의 경우 주변에 우호적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공격적이었고 비우호적 인물이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딤후 4:14-15)고 했겠는가?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았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했고,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했다. 목회자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결코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심도 될 수 있다. 측근일 때도 있고 타인일 때도 있다. 곁에 머무를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때도 있다. 목사의 위로는 늘 언제나 곁에 계시는 주님에게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나 좌절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진다.

iamcspark@hanmail.net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 Ph.D. in Leadership

##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 목장일기

## 고령화 시대에 할 일은 실버 미션 밖에는...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고령화 시대가 열렸다. 며칠 전 뉴스가 한국의 원로 여배우 최은희씨가... 미국의 바바라 부시 여사가 꼭 같은 나이 92세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얼마 전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100세로 세상을 마감했다. 이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했던 옛

시편의 노래는 공감이 얻지 못하는 현실을 맞고 있다. 어르신들이 모이면 9988 231!(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아프고 일어 나세!) 구호도 옛말이 되었고... 백수 보험은 벌써 나왔고 이제는 120세 장수보험도 출시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유엔이 재정의한

평생 연령기준을 보면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79세까지를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시대...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으로 분류를 했다고 한다. 수명은 현격하게 높아졌지만 사회적인 은퇴 시기는 여전히 늘

어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 70세 전후로 은퇴를 한다. 그렇다면 100수 시대에 남은 30년의 짧지 않는 세월들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육체는 여전히 젊고 힘이 있는데 소일꺼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교회나 사회가 젊은 세대는 끌어주고 노년 세대만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노령자들은 홀로 무료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지낸다. 오라는데도 없고 갈데도 없는 세대가 노령세대들이다.

필자는 14년 전에 뉴욕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실버선교회를 시작했다. 1학기 12주간씩 실버들에게 선교훈련을 해왔다. 그리고 강의훈련을 마치고는 단기선교 훈련을 견학했다. 지금까지 700여 명이 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단기 선교에 참가하였다. 선

교지를 찾아가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남은여생을 실버선교에 헌신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의 경우 12가정이 실버 선교사로 장기사역 중에 있다. 장기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파위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선교 활동에 앞장을 서고 있어서 지역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실버들이 되었다.

코리안 실버 세대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온 풍부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진 세대들이다. 실버선교사들은 젊은 목사 선교사들이 갖지 못한 장점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다. 목사 선교사들은 자녀교육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실버선교사들은 이 점에서 자유하다. 오히려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의 든든한 선교 재정 후원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부한 노하우로 실버선교사들은 자비량 선교에도 가능성을 겸비

하고 있다. 복미주 실버들은 이미 다민족들과 함께 지낸 풍부한 문화 체험을 겸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목사, 선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무슬림 지역에서 실버세대들은 저들의 경로 사상 때문에 오히려 우대를 받고 있다. 현지의 추장이라고 해봐야 겨우 50세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연령 같은 실버 선교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코리안 실버들은 다재다능한 솜씨와 눈치가 9단들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던져봐도 살아남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훈련만 시켜서 내보내기만 하면 된다.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실버선교 밖에 없다. 할렐루야!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가 교회를 세워 가기에 힘을 쓰시되,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교회가 세워질 견고한 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할 터가 정해지고 기초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집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

를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2절을 보니까 집을 지을 재료를 열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 8절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자가 받을 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과 재료들은 다 비유로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마다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 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평생,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영적인 집, 곧 교회를 세워왔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하고, 또 마땅한 겁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한평생 집을 지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동기가 하나님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세우가는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면으로 계속)

# 집을 짓는 자들

(고린도전서 3장 10-23절)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해보며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고(창47:9),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약4:17), 인생은 마르는 풀과 같은 것이다(벧전1:24). 이런 등등의 비유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비유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살맛이 납니까? 살맛이 나기는커녕 인생의 덧없음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생의 다른 측면을 말해주며,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을 모르는 허무한 인생들과 다른 바 없어 보이지만 믿는 자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요? 집을 짓는 일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어요? 우리가운데 집을 지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집을 짓습니까?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운데 하나님의 집, 곧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믿는 자로써의 한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 개개인은 물론이지만 - 믿는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함께 지어가야 할 집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건축자로써의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며,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단단한 터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해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주가 좋아서 일을 해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모양도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기초가 잘못 되어있으면 금방 한계에 부딪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 기초가 아주 중

요합니다. 왜 그래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는 뭘 의미할까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포하지 않는 영적으로 잡든 이 시대의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습니까? 인간중심의 메시지가 단에서 넘쳐나고, 심리학적인 치유,

위로, 사랑, 화목, 나눔, 등등의 듣기 좋은 인간적인 말들이 교회를 채웁니다. 듣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분위기도 고급스러운 카페 같습니다. 더 이상 회개나, 회개이니, 심판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을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설교시간에 실수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곧 바로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입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걸 지적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활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도,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곳이며,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은 분명하게 증거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축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이 집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이 집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가야 할 터를 이미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12,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

무엇으로, 어떻게 공력이 밝혀질지나? 다시 말해, 건축에 쓰인 자재를 비롯해서, 건축술의 가치와 건축자의 노력 등이 무엇으로 밝혀진다고 했나요? 13절을 보니까 불로써 입증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시험이 왔을 때 타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거하실 집은 실제적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데에 있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 \$100 | 유럽 .....   | \$190 |
|          | 캐나다 .....        | \$110 | 남 미 .....  | \$190 |
|          | 한국 및 동남아시아 ..... | \$190 | 아프리카 ..... | \$190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br><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글: _____ 목 사 □<br>영어: _____ 평 신 도 □  |
| 배달 주소  | _____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받는분 이름   | 한글 _____ 영어 _____   |
| 전화번호/Fax   | ( ) ( )   |
| 배달 주소  | _____   |
| 교회/기관명   | _____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인사 청문회를 기독교 신앙 심문 자리로 바꾼 상원의원

알마전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으로 지명한 전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공화당-켄자스)가 국무장관으로서의 자격여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오는 국무장관의 자격에 대한 질문들보다는 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질문들을 집요하게 심문받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폼페이를 향하여 집요하게 심문한 주인공은 바로 뉴저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Cory Booker)였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폼페오에게 했습니다.

부커: "당신은 동성결혼이 통과되자마자, 그런 결과를 판결한 미연방대법원이 크게 실수한 것이라고까지 발표했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당신은 '동성애가 변태(perversion)라고 믿습니까?'"

폼페오: "Senator(상원의원님), 제가 정치인이었을 때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같은 견해를 지지합니다."

부커: "그러니까, 당신은 동성애자들 간에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폼페오: "Senator, 저는 계속해서 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커: "당신은 동성애의 섹스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믿습니까?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라는 질문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며 히스테리적으로 폼페오를 압박했습니다.

부커는 또한, 폼페오를 이슬람교 비아로 확인된 것처럼 질문 방향을 잡아갔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부커: "당신은 다른 신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있나요? 특히 무슬림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폼페오: "Senator, 나의 정치기록을 보면 나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심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폼페오는 또 말하기를 "이슬람교

도들에게는 ISIS 테러 공격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 특별한 '기회'가 있기에 그들은 테러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대답하며 테러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커는 폼페오가 제대로 대답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공격적으로 계속 폼페오의 평소 신념들을 압박했는데, 그 당시의 부커의 질문들과 그의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인사 청문회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로서 매우 황당스런 인신공격과 폼페오의 신앙과 신념에 대

안전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보고되는 비율이 높고 또 따돌림과 폭력이 불균형적으로 높을 때 동성애가 타락이라고 믿는 사람을 대통령 다음 4번째 높은 국무장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고요.

부커의 이런 메시지는 자신의 발등을 찌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커가 위에 말한 동성애자들의 통계는 거의 사실이지만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며, 사실상 동성애자들의 가정과 그들이 자라난

적 통계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성애/성전환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자신들만 황폐한 라이프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성병으로 황폐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커 상원의원이 이런 동성애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옳다, 정상이다"라며, 마치 "동성애야 할 만한 라이프스타일"로 인식시키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지지, 용납해야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기준을 자기 맘대로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비민주적이고 이기적이며 거의 공산주의 수준의 편협한 기준인 것입니다.

#### 결론

안타까운 현실은 국회 내에 부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리더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믿고 무분별한 진이슬람 정책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무장관이나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폼페오같이 신앙을 고수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심문하고 압박하는 무례한 언행들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듯 주류 미디어에서까지도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독교인들은 분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야말로 매우 편협하고 무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투표가 가까워오는 이때, 기독교인들은 꼭 깨어 기도하며 미국을 미국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미국의 리더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악몽 같은 삶의 방식으로부터 빛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우리가 먼저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해 공격으로 압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법률소로 잘 알려진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은 말하기를 부커의 심문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무슬림에 대한 지지가 마치 국회에 들어오는 기준처럼 압박을 가했는데, 그런 심문은 매우 부당한 기준이며 극히 비 미국인적인 것이다" 라고 따갑게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Hogan Gidley도 역시 부커의 심문에 대해 말하기를 "폼페오가 기독교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를 난처하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부커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만 격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코리 부커 의원은 폼페오를 국무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동성애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고 동성애 청소년들이 노숙자의 40%를 차지하며 동성애 학생들이

환경의 요소들이 가장 크다는 조사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x-동성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100%가 그들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통계들을 보면 98% 이상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는 성폭행과 가정폭력 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98%가 아빠가 없었으며 엄마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여건이 매우 약하거나 아니면 엄마들도 매우 폭행적이거나, 또는 양부로 인한 성폭행, 결국은 건강한 부모가 상실되어 사랑결핍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통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릴 때부터 겪은 성폭행, 가정폭행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신적, 심리적 상처가 크게 그들을 혼돈시키고 결국, 자신이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찾아 동성으로 눈을 돌리거나 성전환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주는 여러 심리적, 의학적 사실 자료들이 있는데, 부커는 그런 사실적 조사와 심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몇 주 전에 어느 존경하는 장로님이 소천 되셔서 하관에 배에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그 육체가 부활, 휴거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설교자로부터 듣고 위로 받았습니...

A: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의 영혼은 바로 하늘의 천국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희대한 강도에게 한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한 것처럼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어떤 천국 대기소가 아니고 천국입니다. 구속받은 의인의 영혼은 하늘의 새에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히12:22-23) 그곳에서 정신적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하늘의 천국에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 죽은 성도의 영혼은 바로 천국입성...

예수재림 때 육신도 함께 부활해 이 땅에서 살게 돼

혀 자는 것처럼 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새벽까지입니다. 군대에서 밤10시에는 취침하다가 아침 6시에 기상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재림시에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육신은 홀연히 변화하여 하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파조'인데 '흡착한다, 빼앗는다'라는 의미로 라틴어로는 라피오(rapio)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로 랙쳐(Rapture)라고 하는 말인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비스럽고도 재빠르게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 휴거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후 순교한 성도들의 시신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부활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come up here) 하자 부활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영접이라는 헬라어는 "아판테시스"로 이 단어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폴리의 김세운 박사는 파루시아(재림)와 아판테시스(영접)는 서로 짝을 이루는 말로서 지체 높은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하는 한 도시를 방문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그 때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영접하여 모셔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저공중으로 마중 나가서 모시고 땅 위에 온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와그디(WAGDI)



세 번째로 큰 종족으로서 인도 전역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는 종족 그룹이다. 브힐족이 한때는 단일 종족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이들이 무수한 군소 종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으며, 와그디 종족은 그 가운데 하나다.

부문의 드라마타어 계통의 언어들에서 '활(bow)'을 뜻하는 'villu' 또는 'billu' 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을 것이다. 브힐 남자들이 항상 활과 화살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활은 오래전부터 브힐 종족의 특징적인 무기로 간주됐다.

삶의 모습

와그디 족은 전통적으로 사냥꾼들이며 채집가들이다. 비록 창이나 물맷돌 그리고 도끼들을 함께 사용하지만 그들은 사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활과 화살에 의존했으며 식용 작물들, 뿌리들 그리고 열매들을 숲속에서 거두는 일도 했다.

토지를 잃은 일부 와그디 사람들은 고용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삼립정화 작업 또는 도로 복구 작업 등의 일에 종사한다. 와그디족은 옷감을 짜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금속 재련 등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품목들을 얻는 것은 무역에 의

존한다.

와그디족은 길을 따라 풀 더미들을 가로수에 묶어둠으로써 마을의 경계를 표시한다. 각 마을은 대체로 셋 이상 마흔 가까이 이르는 정도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들은 먼 거리를 두고 각각 떨어져 있다. 그들은 대체로 가족 소유의 땅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집들을 짓고 살며 대부분의 마을들은 또한 공동체 사용을 위해 마련된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와그디족은 나무로 테두리를 친 장방형의 2층 집에 산다. 집의 벽들은 대나무에 물과 진흙, 소똥을 함께 개어 만든 반죽을 발라 만든다. 이 재료들은 벌레를 쫓아내고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집에는 창문이 없고 정면 벽에 출입문이 하나 있을 뿐이다. 지붕은 대체로 풀, 대나무 또는 티크나무 잎 따위의 매년 새로 있어야 하는 재료들을 사용한 초가지붕이다. 아버지는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루의 일과를

분담하고 모든 가계 수입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딸들과 며느리들의 할 일을 정하고 그들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한다. 여자들의 하루 의무에는 식사를 준비해서 들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로 가져다주는 것, 그리고 물 길기, 소젖 짜기, 땀감 구하기 등이 있다. 쟁기질이나 씨 뿌리기 등의 농사일은 남자들의 몫이며 사냥 또한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활동이다.

와그디족은 몇몇 씨족으로 나뉘는데, 각 씨족에는 수장이 있다. 수장들은 씨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다. 씨족들이 종종 지리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씨족이 주로 당면한 문제는 족내혼(같은 씨족의 구성원끼리 결혼)을 보장하고 혈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앙

와그디 족은 힌두교의 영향을 매

우 많이 받은 "정령승배자"(무생물에도 영이 있다고 믿음)들이다. 사실 그들이 실천하는 정령 승배적 행위들은 힌두교와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힌두교와 정령승배를 나누어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조상 승배"(타계한 친척들의 영을 승배하는 것) 또한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마을의 "무당(shamans, 제사장)"들은 신들과 진흙으로 만든 우상들의 노를 달래기 위해 돌제단 위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인도의 와그디 종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없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기독교 사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기도야말로 이들이 복음의 진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게 하는 첫 단계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인구조사에 '동성결혼' 항목 추가

미국 인구조사국이 2020년부터 인구센서스에 '동성 결혼' 여부를 묻는다. 240년 가까이 이어져온 미국 인구조사 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미국에 반성경적인 동성애 풍조가 만연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인구조사에서는 동성결혼 여부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에 관한 질문이 더 구체화된다.

혼인관계에 대한 질문 항목이 '이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 '이성 미혼파트너' '이성 동성파트너' 등으로 세분해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항목에는 '남편 또는 아내'와 '미혼 파트너'로 구분돼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 측은 이 같은 질문 사항 추가와 관련, "인구수에 대한 오차를 줄이고 동성결혼 여부 가정의 자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 내 동성애 및 양성애자들이 날로 증가하며 이들의 권익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정확하게 행거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미국 인구조사국은 결혼하지 않고 (이성 또는 동성) 가족을 꾸리는 '미혼 파트너'에 대한 항목을 1990년에 포함시켰다.

터키서 목회하는 브런슨 목사, 쿠데타 지원혐의 구금

2016년 7월 15일, 터키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던 앤드루 브런슨(50) 목사는 이날 쿠데타 소식을 TV로 접했다. 쿠데타는 곧 진압됐고 터키 정부는 쿠데타 세력의 배후로 재미 이슬람학자인 팻할라흐 켈렌을 지목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살던 켈렌이 맹렬한 이슬람 사상을 가르치고 터키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를 심문하면서 자국 내 종교지도자나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후 몇 명의 미국인들이 체포됐는데 여기엔 브런슨 목사도 포함됐다. 켈렌과 쿠르드노동당(PPK)을 도왔다는 혐의였다.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10월 7일 차가운 독방에 수감됐다. 터키에서 감옥에 갇힌 첫 미국인 목사였다.

브런슨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 출신으로 1993년 터키에 입국,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성경지명 서머나)에서 부활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했다. 미국 기독교 매체들은 브런슨 목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쿠데타 세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도했다. 가족들은 그의 무죄를 호소했고 미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은 결심공판이 있던 날이었다. 브런슨 목사는 재판에서 "나는 결단코 터키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나는 목회자다. 내가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들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였다. 켈렌과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터키를 사랑한다. 지난 25년간 터키를 위해 기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터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상황은 비판적이지만 브런슨 목사는 신앙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간 감옥에 갇히는 '애매한 고난'(벧2:19)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앞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수감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인인 노린 브런슨 사모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이 터키에 사는 이유가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이 브런슨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가 졸업한 휘튼대도 기도에 동참했다. 한 중보기도 사이트에는 지난해 9월 브런슨 목사가 재판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며 기도를 당부했다. "나는 터키 정부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브런슨 목사의 페이스북(facebook.com/AndrewAndNorine)에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라"는 요청이 적혀 있다. 노린 사모의 말이다. "우리는 그가 당하는 고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풀땀 흘려서도 풍다(마 18:18)는 말씀처럼 기도로 도와 주십시오."

카터 "기독교인은 적과도 평화의 길 찾을 수 있어야"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新) 냉전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미 카터(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평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미국이 시리아, 러시아 등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기독교인은 적과도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교했다고 보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조지아주 플레인스 마리아나타침례교회의 성인 대상 주일학교 설교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이웃과 전쟁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39대 대통령(1977-1981년 재임)으로 당선된 직후 1만5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다루는 최종 책임자라는 걸 깨달았다"며 "러시아(당시 소련)와 갈등 끝에 핵전쟁이 나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재산을 팔아 이웃의 필요를 채웠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와 교제만 있고 이웃에 대한 헌신과 관용은 없다"며 "초대교회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오늘날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6일 출간한 32번째 저서 '믿음(Faith)'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평화와 인권 분야의 챔피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오늘날 마주한 도전 앞에서든 인류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10대 때부터 마리아나타침례교회에 출석했다. 퇴임 이후에는 주일학교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해 군사 긴장을 완화시켰다. 그는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줄곧 군사적 행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해 왔다. 2002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르웨이교회 "예수도 난민이었다"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뉴스는 노르웨이교회가 난민을 위해 국경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유엔 난민 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유럽을 떠도는 난민은 6000만명에 달한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테러와 난민이 확산되자 2016년부터 국경을 통제해 왔다.



떠도는 난민들이 각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노르웨이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그들(난민)을 환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르웨이교회는 "예수께서도 난민이었다"라며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실제로 예수는 헤롯왕이 베레레임 인근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죽이도록 명령하자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노르웨이교회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 세상에서 그들과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외국인혐오증에 마비되고 있다. 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유럽이 쌓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르웨이교회는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를 향해 "용기를 갖고 말과 행동을 통해 난민들을 환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연진 폭발 女 조종사에 찬사

연진 폭발로 추락 위기를 맞은 대형 여객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며 대형 참사를 막은 여성 조종사가 영웅이 됐다. 3만2000피트(9753m) 상공에서 동체가 떨어져 나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독교적 신념으로 사고에 침착하게 대응한 그녀에게 '강철 심장을 지닌 크리스천'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등 기독교매체들은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사우스웨스트항공 보잉 737 여객기의 조종사인 타이 조 슈츠(Tammie Jo Shults, 56)에게 '강인한 여성 크리스천(strong Christian lady)'이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어맨다 보어맨은 비행기가 지면에 안착한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종사는 정말 놀라운 사람! 그녀가 공항에 우릴 무사히 착륙시켰다"면서 "하나님이 우릴 지켜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적었다.

사고는 지난 17일 발생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49명을 태운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기의 왼쪽 날개 엔진이 이륙 20분 만에 폭발했다.

기내에선 긴박한 상황이 빚어졌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파편으로 여성 탑승객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탑승객 페기 필립스는 "엔진이 폭발했을 때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다"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기적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아찔했던 사고 순간을 기억했다.

슈츠는 그러나 냉정함을 잃지 않고 곧바로 인근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든 승객의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슈츠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기체 일부가 소실됐다.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활주로에 도달하면 응급의료진을 보내줄 수 있으나, 탑승자 중 부상자가 있다"고 침착하게 전했다.

침착하게 사고에 대응한 슈츠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문 입구까지 나와 승객 한 명 한 명을 모두 안아주며 위로했다.

슈츠의 모친인 버지니아 슈츠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적 신앙이 위기의 순간 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그 순간 딸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슈츠는 미 해군 최고의 여성 비행사 중 한 명이다. 1983년 캔자스 주 미드아메리카 네이저러대학을 졸업한 뒤 85년 비행학교에 입교해 비행사가 됐다. 89년에는 여성 최초로 미해군에서 FA-18 호넷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됐다. 교관으로 복무하면서 소령까지 진급한 그녀는 전역 후 93년부터 사우스웨스트항공 조종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같은 항공사 조종사인 남편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국민 할머니' ... 바버라 부시 여사 별세

미국에서 지난 세기 가장 인기 있는 퍼스트레이디로 꼽히는 바버라 부시가 17일 숨을 거뒀다. 향년 92세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그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어머니다.



바버라는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유행성심부전(CHF)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들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임종을 맞았다.

바버라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상류층으로 살았지만 소탈한 성격과 유머 감각으로 대중에게 인기가 높았다. 남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이미 공화당의 유명인사로 이름이 알려졌다. 대통령을 지낸 남편과 아들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자서전 2권과 반려견의 이야기를 담은 '밀리의 책' 등 저서는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의 베스트셀러다.

바버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기독교학교에 다니던 16세 무렵 학교 덴스파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1년 반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애를 하던 둘은 부시가 2차 대전 참전을 위해 해군에 입대하기 직전 약혼했다. 해군 파일럿으로 활약한 부시가 부상으로 제대한 뒤 바버라는 스미스대학을 관두고 1945년 19세 나이로 그와 결혼했다.

바버라는 이후 남편의 정주 사업과 26년 정치활동을 돕고 자녀를 키우며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 바버라 외에 미국 역사상 남편과 자녀가 대통령이었던 여성은 남편 존 애덤스 전 대통령과 아들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을 둔 애미가일 애덤스가 유일하다. 다만 살아서 아들의 취임식을 본 건 바버라뿐이다. 20세기에 어울리는 '미국관 신사임당'이라 할 만하다.

바버라는 당시까지의 대통령 부인들과 달리 얼굴 주름과 새하얀 흰머리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코미디 언들은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에 빗대며 유머 소재로 삼았다. 공식 석상마다 착용했던 여러 줄짜리 가짜 진주목걸이와 귀고리 역시 그의 소탈함을 대변하는 트레이드마크였다.

'트럼프 효과' ... 한반도 대반전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 달라졌다. 올 초만 해도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던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받아들인 이후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 변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종전(終戰) 선언을 미리 지지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집념을 연일 드러냈다. 특히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한껏 드러냈다.

그는 회견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평화는 한국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많은 것을 해쳐 나 왔으며 이제는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한껏 치켜세운 그의 국회 연설을 연상케 할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태껏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억지력 강화, 추가 제재 추진 등 강경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국인들이 우려했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CVID)를 이룬다면 밝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보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몇 주 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며 "회담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49. 이종선(1907-?)

이종선은 1907년 9월 15일 서울에서 장로교 교인이었던 아버지 이성욱과 어머니 최정희에게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다. 본적은 한국 평안북도 신의주였다. 1926년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년 공부하였다. 그는 재학 중 1926년 3월 만주 길림성에 있던 제5국민학교가 국어독본 1부만 보내달라는 호소에 이종선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도서를 보내는 등 동포 사랑을 발휘했다.

흥을 가진 후 밤 11시 30분에 해산했다.

스타튼한인교회 지방 전도사

1930년 4월 18일 오전 10시에

년 4월 20일 하오 8시에 달라노 한인예배당에서 음악회가 있었다. 한석원 목사 사회 하에 어린 음악가들의 피아노 독주, 어린 창가대의 합창, 어린 학생들의 독창, 리틀리 창가대의 창가, 상항 찬송대의 병창,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 독주 그리고 리틀리 창가대의 김덕시와 이순의 병창은 세 번이나 있었고, 김영옥의 바이올린 독주 다음에 이종선이 독창을 하였는데 청산녹수가 춤을 추는 듯 하였다



이종선 목사

신경, 기도, 찬송 제4장, 황사선 목사의 기도, 상항 찬양대의 합창, 성경낭독, 헌금, 임케트린의 피아노 헌금연주, 광고, 김메리의 독창, 데이비스 목사의 설교, 찬송 제3장에 이어서 축도가 있었는데 이날 김메리의 독창이 있기 전에 이종선이 독창을 하였다.

1930년 7월 1일에 상항한인국 어학교 하기 강습을 개학할 때 교장 황사선 목사의 주최로 간단한 개학식을 거행하였다. 출석한 학생 수는 30여 명이었고 교사로는 이종선 외에 문양목이 있었다. 교사 두 사람을 두어서 매우 양호한 성적을 보도록 노력한다고 알려졌다.

그해 12월 28일 주일 저녁 8시 30분에 상항 한인예배당 사교실에서 상항과 상항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남녀 12세 이상이 모여 윗놀이를 하였다. 윗놀이 경각이 있는 동시에 남녀 양편에 각각 1, 2 등을 내어오는 1931년의 선수권을 들이는 것과 값진 상품이 있었다. 이날 회비는 일인당 40센트였다. 이 윗놀이 진행을 이종선이 상항 학생 사교부의 박필련과 최예다와 함께 맡았다.

이므로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통과했다. 이종선은 동양인 선교대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게 된 셈이다. 이종선은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 가던 1932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전도사직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종선이 전도사로 시무했을 때의 예배처는 임정구 목사가 거주했던 사택이었을 것으로 본다. 임목사는 1931년에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하기 전의 주소는 9가 스트리트 343번지였고, 이사한 후의 주소는 엘리스 스트리트 911번지였다. 이사한 달이 언제냐에 따라 이종선이 섬길 때의 예배처는 두 사택 모두 일 수도 있고 후자의 주소만일 수도 있다. 1932년 보고에 따르면 오클랜드교회와 사도교회가 합쳐서 출석 교인이 71명이었다.

시카고 한인교회

이종선은 버클리 거주 대학교 농과에서 2년간 공부하고 1932년 5월에 본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상항학생회 주최로 졸업생 축하반회가 1932년 5월 8일 주일 저녁에 시내 중국인 요리점에서 있었

로 보인다. 그런데 이종선의 졸업한 날짜가 없어 신학사 학위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독립 운동과 동포 사랑

이종선의 독립운동은 1930년 스타튼 한인예배당에서 개최한 삼일절 행사에서 '추도의 말' 순서를 담당함에서 볼 수 있다. 그가 1931년에 국민총회 선전부 위원장 임정구와 함께 대표자가 되어 그해 10월 상항 중국인 중화회관과 국민당의 쌍십절 기념연설회에 참가하고 만보산 사건의 진상을 해석하고 만주 문제 중 중한 양국의 관계를 절실히 논술했으며, 또한 1934년에 국민회 창립기념금을 낸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종선의 동포 사랑은 1930년 6월 대한제국 외교 고문 미국인 스티븐스를 응징한 장인환 의사의 별세에 애도하는 뜻을 부의금에 담음에서 보게 된다. 그해 8월 임정구 목사 모친 별세에 부의금을 냈고, 1931년 1월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역하는 이화여전 건축기금을 기부했으며, 그해 4월 일본에 거주하는 가엾은 동포와 고학생을 위하여 동경한인기독교청년회 구제부로 보낸 기부금에서도 그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

귀국

에반스톤에서 출발한 이종선은 1934년 여름에 오클랜드에 도착하였고, 그는 서양 친구의 집에서 묵으면서 귀국을 준비했다. 그를 기억하는 오클랜드한인교회는 그를 위하여 세 번의 전별식을 마련했다. 그는 1934년 9월 4일에 박인준과 함께 치치부 마루 선원으로 귀국하였다.

미군 철퇴로 일층 일반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49년 6월 23일에는 시내 기독교도들의 방위대회가 있었다. 구교와 신교가 합동하여 성동 워드 서울 운동장에서 몇몇 장관과 미국 대사를 대신한 서기관 등 약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황금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동 사무총장대리 이종선은 "우리 기독교 신도들의 열렬한 애국열은 조국을 반드시 평화로운 지상천국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는 의미심장한 축사를 하였다. 이후 그의 발자취는 찾을 수가 없다.

damiensohn@gmail.com

### 1927년 도미, 모데스토 주니어대학 다니며 상항한인교회 출석

### 스타튼한인교회, 오클랜드한인교회 전도사 사역, 프린스턴대서 신학공부

### 1934년 귀국, 1949년 기독교도 방위대회 이후 흔적 없어

상항 예배당에서 데이비스 목사의 주관 하에 모인 지방회는 모데스토 주니어 대학생이었던 이종선에 게 이완규와 함께 스타튼교회 개척회의 천거로 새로 전도사 직책을 1년간 주기로 가결했다. 당시 스타튼 목회자는 김 탁 목사님과 임성택 전도사가 있었다. 그해 3월 말로 스타튼교회는 등록 교인 수가 80명이었는데 30명이 출석하였고, 작년 7월부터 낸 헌금 총액은 600달러였다.

미국 남감리교회 4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주에 건너온 조선연회 대표 임두화 목사와 김인영 목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1930

고 한다. 이후 양메리의 '내지여성 운동'에 관한 강연 등이 계속되었다.

상항 한인교회

모데스토 주니어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한 후 이종선은 버클리 거주 대학교 농과에 입학하였다. 그가 버클리 거주대학에 입학하면서 백인교회인 버클리제일장로교회에 등록하였다. 그런데 그는 상항한인교회에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상항예배당 낙성식이 1930년 6월 1일에 있었다. 임정구 목사의 사회와 김메리의 피아노 서곡, 찬송 제2장, 사도

오클랜드한인교회 지방 전도사

이종선은 1931년 3월 오클랜드한인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받았다. 당시 본 교회 담임교역자는 오클랜드와 사도 구역을 담당한 임정구 목사였다. 그해 보고에 따르면 오클랜드와 사도를 포함하여 출석 교인이 66명이었는데 오클랜드교회의 출석 교인은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다.

이종선은 그해 9월 5일 상항 백인 남감리교회 끝나이드 기념예배당에서 감독 무어 박사의 사회로 모인 미국 남감리교회 동양인 선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임 목사만 본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전도사와 평신도대표는 지방회 회원

다. 이종선을 포함한 대학 졸업생과 6월에 졸업할 중학생들까지 초청하여 사랑의 만찬을 나눈 후에 상항 한인예배당에서 간단한 축하식의 순서를 가졌다.

이종선은 버클리 거주대학 농과를 졸업하던 그해 9월에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1933년까지 1년간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해 가을에 그는 에반스톤 서북대학 신학부로 전학하여 이곳에서 1년간 공부하였다. 이종선은 에반스톤에서 공부하던 1934년에 북미 유학생 중서부 연회의 연회부를 맡아 활동했다.

이종선은 위의 유학생회 회장이었던 갈홍기 목사가 시무하던 시카고 한인교회에 출석하였을 것

(4면에서 계속)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무슨 섬김과 봉사이든 그 일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나으니"(삼상15:22).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로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렸으면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을 거창하게 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

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시

므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ivingstonech@gmail.com

#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모집

Doctor of Ministr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 Doctor of Ministry

Korean Pastoral Theology in Practice

### 교수 소개



#### 문석호 교수

(Dr. Suk Ho Moon, M.Div., D.Min., Th.D)  
뉴욕신신장로교회 담임  
\*Understanding Philosophy and Christian Apologetics,  
\*Spiritual Leadership: Searching for Vision, Transformation, and Harmony.



#### 류응렬 교수

(Dr. David Ryoo, M.Div., Ph.D)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전 총신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

강 의 2018년 7월 23일 - 8월 3일  
접수마감 2018년 5월 9일

목회자의 삶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성경적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회철학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소명을 약화시키지 않는 온전한 목회를 지향한다면 어떨까요?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과 목회로 행복한 목회자로 준비되어 섬기는 각 교회마다 거룩한 영적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1.800.816.1837 | dminoffice@gcts.edu  
www.gordonconwell.edu/dmin

Doctor of Ministr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 리더십 코멘터리 (63)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행복의 혁명을 일으켜라

### 인생의 고독

인생들은 원조적으로 고독하다. 진리를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인간은 절대로 고독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지금 돈과 물질만을 갈구하는 발걸음으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이는 것만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믿어야 보이는 것도 있다.

### 행복한 마을의 3가지 특징

사람의 일은 모르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 몸이 튼튼하고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자신하지 마라. 당신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뉴스에 난다. 어느 날 병원진료를 받고 말기 암 선고를 받게 된다.

현대사회는 지금 영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행복한 마을'이 눈을 끈다. 행복한 마을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로, 행복한 마을에 가면 '환한 미소'가 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스마일 경기가라도 하듯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서로에게 보낸다. 웃음은 일정 조건이 만족될 때 15개의 안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평소 웃지 않는 사람은 웃는 데 필요한 안면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유교적인 태두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웃음과 미소에 익숙하지 못했다. 특별히 교회에선 아직도 웃음과 미소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평소 웃음이 잘 안 되고 희귀한 것이 행복한 마을에는 넘쳐난다. "리더여,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자."

둘째로, 행복한 마을에 가면 '넘치는 친절'이 있다. 여기서 친절이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

고분함을 의미한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친절하고 아양을 떨지 말고 항상 친절하고 어진 태도를 유지하라. 왜냐하면 그 친절함과 인자함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파스한 체온과 힘과 빛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리더여, 익숙한 딱딱함에서 벗어나 세련된 매너를 나누자."

셋째로, 행복한 마을에 가면 '수준

높은 서비스'가 있다. 요즘 교회에서도 무료커피 주는 곳이 많은데 대부분이 '먹으려면 먹고, 갈려면 가라'는 식이다. 고급 카페에서 먹던 그 맛과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자. "사람들이여, 한번 스치고 마는 사람이라도 항상 최고의 정신으로 사람을 만나자."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비록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사람들을 최고의 매너로 만나고 그들과 친절하게 대화 나누기를 바란다. 잠깐 웃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인연들에게도 항상 최고의 정신으로 그들을 만나고, 최고의 미소로 안부를 전하는 리더는 하늘이 길을 내며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도약하는 인간은 행복하다

우리 주변에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진 이들이 있다. 사회생활이 힘들고 매일의 생활을 하기 힘들다

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가 사는 데 '꿈과 소망'이 중요하다. 그러면 인생의 혼란기에 어떻게 도약하고 상승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에 둔만 알고, 높은 자리만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하고 보

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인생의 청사진을 꼼꼼히 살펴봐라. 날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도전정신을 갖고 더 높은 단계로 삶을 끌어올려라. "이만하면 됐어"라는 안일한 삶의 태도는 순식간에 자기 부정과 몰락에 빠지게 만든다. 삶에 안주 하지 말고 인생의 청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는 비저너리(비전이 가득한 사람)가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앞서가는 리더가 되려면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장하여 더 많은 일을 이루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깊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삶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

희망을 가진 인간은 행복하다

성공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뜻밖의 부산물로 따라온다. '희망과 도약'이라는 테마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성경의 주요 정신중의 하나는 "하나님은

환한 미소, 넘치는 친절, 수준 높은 서비스로 행복 만들기

'지혜의 마음' '삶의 만족' '보람된 삶' 을 위해 기도해야

나나 인간은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 죽음을 다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라. 인간됨의 첫째 되는 덕목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다시 말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 빠진 이웃을 돕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배신은 현대인의 기본자질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피 묻은 칼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행복의 혁명을 일으켜며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진리는 영원하지만 그에 비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의 고독과 허무를 극복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간은 세 가지 기도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기도는 '지혜의 마음을 위한 기도'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인생의 날수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우리는 천년만년 마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시간, 물질, 재능, 육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분주하게 살지 말고 선물들을 잘 사용하며 인생의 날수를 헤아려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기도는 '삶의 만족을 위

한 기도'이다. 만족이 있는 인생이 행복하다. 만족이라는 말은 끝까지 채운다는 뜻이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쾌락, 권력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 도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많이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다. 그래서 만족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가운데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보람된 삶을 위한 기도'이다. 인생의 허무를 느낄 때가 언제인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일이 헛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진리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heonlee55@hanmail.net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보잘 것 없는 솔람미 여인이 주를 흠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인 솔로몬이 보잘 것 없는 솔람미 여인을 그리도 머리꼭대기부터 발 끝 살살히 음미하며 기뻐하듯이... 왕 중의 왕 주님이 나를 그토록 심히 기뻐하며 소중하다고 오하려 내 눈치를 보며 내 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고 맘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무궁한 인내와 변함 없는 사랑으로, 도무지 믿음이 없어 한 없이 의심하여 그런 사랑을 원하고 또 원하고 갈망하면서도 덤덤 잡아 내 사랑으로 잡아 누리지 못하는 솔람미 여인의 소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저의 모습으로 절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위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여 있지 말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꽃이 만발해 향기를 토하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내 맘을 살포시 열도록 꽃향기로 열어 주십니다.

미련하여 한 없이 의심해 가까이 갈다가도 조금만 탐탁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떨고서 또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어도 꽃으로도 때리지 않으니 나는 왜 그 모양이나 채근하시도 아니하시고 이 어리석어 넘어지지만 하는 나를 안아서 세워 주시고 영원토록 곁에서 날 지켜보아 주시고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도 내게로 달려와 꼭 안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느 누구도 주님 당신과 같은 사랑을 줄 수도 줄 이도 없는 줄을 알고 더 이상 다른 어느 곳에서 위로받으려는 목마른 몸부림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을 더 이상은 밀어내지 않고 그 품을 죽히 여기고, 당신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내게 오늘도 가슴 가득 넘치도록 부여 주시는 그 사랑을 음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누리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린 시슴과도 같아서 그 맑고 큰 눈으로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나를 부르시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 주님이 나를 사모하시니 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 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다스리시니 나의 영혼에 성령의 기쁨의 향내가 흘러넘쳐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 나의 신랑되신 사랑하는 내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당신의 신부라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아2:16).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신랑 되신 내 주님만 영원토록 사랑하리이다.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 송축합니다.

heonlee55@hanmail.net



# 제 8회 청교도복음연구회 정기세미나

## “청교도와 성령”

- 일 시: 2018년 5월 5일(토)(7:00 AM-8:00 PM)
- 장 소: 1. Chuch of Jonathan Edwards ('The First Church of Northampton') 129 Main Street, Northampton, MA 01060
- 2. 조나단 에드워즈의 공원묘지 및 근처 J.E. 박물관과 교육센터 ('The Bridge Street Cemetery' & 'J.E. Historic Northampton Museum & Education Center') 156 Bridge Street (Route 9) Northampton, Massachusetts, U.S.A. (413) 587-4900
- 3. Yankee Candle 제작 판매소 : ('Deerfield Village Store') 25 Greenfield Road South Deerfield road, MA 01373 877-636-7707
- 출 발: 34-30 150 PL Flushing, NY 11354 (노던 신원은행 골목 대한교회 맞은편 천갤러리 마당)
- 일 정: 출발 - 도중 간식 - 교회 - 점심 - (예배 및 세미나)공원묘지 - 박물관 - 양초가게 - 귀가 길 저녁 - 해산
- 회 비: 교재, 차비, 식사, 입장료 일체. 일인 \$40 (신청예약, 당일회비)

주최: 청교도복음연구회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구속주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중생과 성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태초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나 칼빈같은 개혁자들은 로마교 교황주의가 missa로써 그리스도의 피없는 희생에 예배의 주요소로 삼고 전통종교와 그에 따른 사제제도의 필요불가결을 가르칠 때 이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생명을 적용시킴에 성령의 역할과 필요를 부각시켰습니다. 초대교회, 개혁신앙을 잇는 청교도들에게 있어 선배 칼빈의 성령론은 단순한 론이 아닌 삶 전체였습니다. 영국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이자 신학자 존 오웬, 리차드십스 목사, 미국 대영적각성의 주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화란의 정치가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현대에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베르너 크루슈까지 개혁신앙에 뿌리를 둔 수많은 목사님들에 의한 성령에 대한 체험과 탐구는 개혁교회 산하의 신학교에서 조차 칼빈은 성령론에 약하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할렘루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정착된 미국청교도의 400주년 되는 2020년이 되면 저희 청교도 복음연구회의 그동안의 소중한 연구발표회와 예배가 10회를 맞게되어 좀 더 의미있는 세미나를 더 많은 강사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떤 갑작스럽고 떠들석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청교도 정신의 함양이 성도의 삶에 예수그리스도를 품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하는 이 세미나에 보다 넓고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강사 및 설교자 | 내 용                  | 사 역             |
|----------|----------------------|-----------------|
| 최기성 목사   | 청교도와 성령 (설교)         | 은혜와사랑의교회        |
| 김필식 목사   | 리차드 십스목사의 회심과 성령의 역할 | 뉴욕영림교회          |
| 이창중 목사   | 존 오웬목사의 청교도와 성령      | 뉴욕동서교회          |
| 김경욱 박사   | 조나단에드워즈와 성령          | 청교도복음연구회 가정사역원장 |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내 영혼 평안해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특징은 유행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이다.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스타일과 말하는 스타일 등이 그들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어른 세대는 어떤가? 지금 현재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세상이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의 초점이 언제나 세상이다.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한 마리 새처럼 세상이라는 새장에 갇혀서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열린다. 세상의 화려한 유행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잠깐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눈요깃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천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세상에 대해서 '헛된 시창'이라고 표현하였다. 헛된 시창 같은 세상을 멋지게 바라보면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나면 드디어 헛된 시창으로서의 세상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새장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새장에 갇혀 살아갈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는 생

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눈이 열려서 세상이라는 새장을 빠져나오고 나니 이제 '영원한 운명'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영원한 시간에서 나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세상과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궁극해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처하게 될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새장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 나와서 자신의

영혼이 처하게 될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가지 메시지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 세상은 사람들을 온갖 달콤한 말들로 띄워주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창공에 '붕' 떠 있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결코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태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엡2:1)라고 말씀한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뽐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어느 부분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그리고 전적으로 구제 불능의 죄인들이라고 말씀한다.

전적으로 구제 불능한 죄인들이라는 점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죄'문제가 해결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다. 세상은 지금도 조금 더 나은 길을 열심히 찾고 있다. 이 길이 조금 낫겠다 싶어서 그 길로 달려가지만 조금 가다가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을 만나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더 나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 그런 반복이 끊임없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져간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더 나은 길을 지금까지 찾아왔다면 그 시간들은 한마디로 낭비다. 그와 같은 모든 시도를 멈출 필요가 있다.

그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선언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요한복음 14:6). 유일한 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 영혼이 그분 안에 보관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어떤 흉흉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 있는 영혼 만큼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보호받고 보존된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보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느때라도 당신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어 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16).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할때 그리고 한발짝 걷기도 힘들만큼 심신이 약해졌다고 느껴질때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속에서 그리고 기도과 찬양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따라 묵상에 마음을 거둬들여 깊이 만나 보라. 그러면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미주성결교회 39회 총회

총회장 최경환 목사, 부총회장 김용배 목사, 장석면 장로 선출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이상복 목사) 제 39회 정기총회가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이란 주제로 열렸다.



제39회 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7일 오전 속회시간에 열린 총회장 및 임원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LA지방회 소속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가 총회장에, 북가주지방회 소속 김용배 목사(실로암교회)가 부총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신임 최경환 총회장은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총회가 됐으면 한다"며 "총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영어나역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OMS와 웨슬리교단에 파송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총회를 위해 1년간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자 은퇴플랜에 대해 김해란 재정전문가의 설명회가 있었으며,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노세영 목사의 레위기에서 나타난 성결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윤승중 선교사의 '목회자의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가 이어졌다.

황화군 목사와 남궁태석 목사가 각각 북클럽과 바이블타임을 소개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총회기간에 여전도회연합회 세미나도 열렸는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심상범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18일 저녁에는 목사안수식을 가졌으며 고대근 목사 등 9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편 첫날 개회예배는 최경환 목사(부총회장)의 사회로 시작해 황규복 장로(장로부총회장)가 기도했으며 황영송 목사(서기)가 성경봉독한 뒤 시온성결교회 성가대 찬양이 이어졌다. 이상복 목사는 '귀하게 쓰임 받는 종'(왕상 13:1-6)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11면으로 계속>

이러 직전총회장 황화군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했으며, 이상복 목사가 2017년 한해 동안 지방회장으로 헌신한 목회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상범 목사와 노세영 목사, 밤 패터린 박사(OMS총재)가 축사하며 OMS 부총재로 취임한 최준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뮤지컬 배우 이은을 집사(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의 축가와 교단가를 다 같이 부른 뒤 전 총회장 최승운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마쳤다. <11면으로 계속>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캠퍼스에서 열린 민중기 목사 북토크에서 민중기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목회 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민중기 목사 북토크 열어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가 주최한 민중기 목사의 저서 '목회 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북토크가 16일 오후 12시 본교 LA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북토크는 민중기 목사가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책 소개, 본교 신학교 교수들의 논점으로 이어졌다. 민중기 목사는 "본교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목회세습이 하면 안 되는 25가지 이유를 써오게 했다. 학생들이 써온 이유 중 4-50개 아이템이 제공됐으며 수업시간에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과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안식년을 제공해준 중현선교교회에게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2017년 3월 29일 명성교회 세습 강행이 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다"며 "명성교회 세습은 중현교회 세습 등 세습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들이 오버랩 되는 듯 했다"고 말했다. 그는 "책 내용은 과거 아픔으로부터 출발한다. 중현교회에서 아들에게 물려줬던 김창민 목사의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봤다. 교회 앞과 성도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셨다. 그 영상을 2012년에 보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며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 목회자가 자식에게 세습

했다. 경인지역에 120교회가 세습을 마쳤고 진행되는 곳까지 해서 300교회, 전국적으로는 600교회가 세습했거나 진행 중이었다. 많은 신학자들이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교회의 힘 있는 교역자들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강행했다.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데 신학적으로 분석해 낸 책은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신학적 상식으로 목회세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신학, 신학학, 구약학, 역사신학, 윤리학, 조직신학, 공공신학 카테고리에 입각해 목회세습의 문제를 연구했다"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면, 한 사람도 목회세습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목회적 필요성 때문이지 성경이 지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중기 목사 발제에 이어 본교 김수영 교수와 다니엘 뉴먼 교수가 논찬했으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질문 중 한국의 소형교회 세습에 대해 민중기 목사는 "과거 세습은 대형교회 내지는 중형교회에만 국한이 됐다. 하지만 목회자 포화상태에 처한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50명 이하의 소형교회에서도 담임목사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징검다리 세습, 교차세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습이 시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CA) region.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LA 복음연합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제 8회 청교도복음연구회 정기 세미나

청교도복음연구회(회장 김필석 목사)가 주최하는 제 8회 정기 세미나가 "청교도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5월 5일(토) 매사추세츠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와 에드워드 공립묘지 및 J. E. 박물관과 교육센터, 양키 캔들 제작판매소 등을 순회한다. 오전 7시 뉴욕을 출발해 오후 8시 도착예정. 세미나가 진행될 장소는 노스햄튼의 제일교회다. 설교 최기성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김필석 목사(뉴욕영림교회), 이창종 목사(뉴욕동서교회), 김경옥 박사(청교도복음연구회 가정사역원장)가 강의한다. 회비는 40달러로 종식과 입장료 등 일체 경비가 포함된다.

▲문의: (718)939-8278, (917)399-6754

미동부 총신대학교 신대원 동문회 정기총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가 5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필라 밀알선교센터(이재철 목사, 423 Derstine Ave, Lansdale)에서 열린다. 회비는 50달러. 총회 후 랭커스터 Sight & Sound에서 뮤지컬 "지저스" 관람하게 되며 입장권은 수석부회장 이재철 목사가 후원한다. 뉴욕지역 출발은 당일 오전 7시 20분 컨츠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파킹장이며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한다.

▲문의: (917)353-5477 이윤석 목사, (215)833-8070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업 가이드가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히10:34) 라는 주제로 4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강사는 배희남 회장(G.L.F.대표), 장소는 46-20 Parsons Blvd. 자료와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718)279-1414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

2018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가 최현우 사모(한울림교회, 전 Joyful Women's Choir of NY 지휘자, 전 Chamber choir Cantabile 지휘자)를 강사로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5주간에 걸쳐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장소는 후러시제일교회(담임 김경호 목사)이며 등록비 50달러. 작은 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지휘법과 성가대 운영, 음악이론 전반에 걸쳐 성가대 소리지도, 레퍼토리 선곡에 따른 지도와 지휘의 실제 훈련을 하게 된다. 선착순 약간 명. 뉴욕교협이 후원한다.

▲문의: karis6004@gmail.com

온라인 미주국민일보 뉴욕 오픈

미주국민일보가 23일부터 LA 등 서부지역에 이어 동부 뉴욕에서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한 여정까지 뉴욕중앙일보에서 종교 담당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승우 뉴욕 주재기자는 뉴욕 지역 오픈을 알리며 "국민일보는 1988년 한국에서 창간돼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독교계를 대변하는 종합일간지로 충실히 사명을 감당해 왔다"며 "2015년 출범한 미주 국민일보는 동포사회에 일반뉴스는 물론 한국교계 및 미국 한인교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ny.kukminusa.com, 기사 제보: newyork@kukminusa.com

제 8회 '부부관계 향상 세미나'

제 8회 '부부관계 향상 세미나'가 패밀리터치(원장 정성숙 박사) 주최로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1시30분-4시) 뉴욕아스토리아한인교회에서 진행됐다.

이 세미나는 10가지 대화기술 훈련을 통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대화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부부 커플과 성인 개인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결혼 30주년부터 결혼 50주년까지 오랜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이 참석해 더욱 뜻 깊은 도전의 시간이 됐다.

한편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는 뉴저지산돌교회에서 진행됐다. 동 교회에서는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성도들 부부와 개인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므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

사랑의동산교회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

뉴욕 사랑의동산교회(담임 강신용 목사)가 지난 22일 저녁 5시 롱 아일랜드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22년 전 후러시에서 7명이 시작해 칼리포인트, 베이사이드 등 예배처소를 7번 옮겼으며 이번 8번째로 입당하게 됐다.

담임 강신용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그동안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쫓겨나서 야외예배도 드렸다. 8년 전부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7월(2017년)에 응답해주셨다. 그런데 이곳 학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고 생소한 지역이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음을 믿고 결단하게 됐다"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다"고 건축 경위를 설명했다.

예배는 강신용 목사 인도로 김홍일 안수집사가 기도하고 최지도 목사가 설교했다.

최지도 목사(뉴욕소망교회 담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열

2:21-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인(표적)인 음성을 들었다"며 "첫째, 성도 한명 한명이 성전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사인(표적)이 성전을 주셨다.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 목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라며 "성도 한명 한명이 초화된 관계가 하나님을 거하시길 처소다.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뜻, 한마음,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영철 집사의 특송 후 헌당문을 교육하고 강신용 목사가 헌당기도한 후 공포했으며 제시유 교수가 축주를 했다.

이어서 박이스라엘 목사(새소망승리교회)와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가 축사하고 남성4중창이 있는 후 헌금특송 배유정 교수, 헌금



사랑의동산교회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에서 강신용 담임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기도 최호의 목사(뉴욕리폼드신학교 교수), 축주 강신내 집사(바이올린), 축복기도 박태규 목사(새림교회), 광고, 만찬기도 박석산 장로, 축도 강신용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사랑의동산교회 새 주소는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전화문의는 (516)433-0862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57차 목요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57차 목요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매일 개최하는 목요조찬기도회가 지난 19일 오전 8시 열방교회(담임 안해권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정권식 장로 인도로 대표기도 남태현 장로의 대표기도 후 안해권 목사가 설교했다.

안 목사는 "기억하라"(신32: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는 역사이며,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네 여른들에게 물으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는 1)뉴욕장로연합회 발전과 회장의 건강을 위해/김요한 장로 2)분교회(열방교회)부흥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역을 위해/백달영 장로 3)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를 위해/송운섭 장로 간절히 기도했다.

홍성사중창(우화선 장로, 남후남 장로, 손성대 장로, 손옥아 권사)의 헌금특송 후 회장 김영호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하고 안해권 목사 축도로 마쳤다.

김영창 장로의 식사 기도 후 열방교회에서 마련한 조찬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조찬 후 2부 순서로 "기독교국제 금주학교" 부대표 최정미 목사의 "중독자 가족치유 사역"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4주간 집중 교육을 실시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힌 최 목사는 "이 사역은 절박한 사회 문제"라며 중독자정착과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다스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4월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4월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성령 충만한 어머니의 삶 살자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 4월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매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4월 18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김태열 사모(고한진 목사)를 강사로 열었다.

예배는 남상보 집사 찬양인도후 사모의 안경순 목사, 기도 박드보라 목사, 특송 오우디아 권사 박경숙 집사, 설교 김태열 사모, 합심기도 김사라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박차숙 전도사, 광고 최근선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3월로 이어 두 번째 초청된 김태열 사모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본문으로 "성령충만한 어머니들이 돼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지"고 전했다.

김태열 사모는 모태신앙으로 목사 사모가 된지 8년이 됐어도 성령 체험을 못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며 답답했던 목사 사모로서의 삶을 간증하며 성령체험 후 매일매일 영적 가이드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36년 동안 대형교회 사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뉴욕시 공무원으로 15년이

되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었지만 14년 6개월 되던 때 성령체험을 한 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 사직을 하고 목사사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결단도 성령의 힘이였음을 전했다.

김 사모는 참석자 어머니들에게 "M.S.G.(My Spirit Guide, 나의 영적 인도자)를 갖기 바란다"며 자신의 MSG는 마태복음 7장 7절(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으로, 이 말씀이 평생에 영적가이드가 됐음을 간증하며 어머니기도회 기도 말씀으로 성령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2부 친교 오찬기도는 심화자 목사가 맡았다.

5월 목회자 중보기도회는 5월 9일(수) 오전 11시 알리폰드파크에서, 제18차 어머니기도회는 5월 16일(수)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열린다.

한편 한국어어머니기도회가 주최하는 국제기도성회가 6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한국 청월 진주교회에서 "민족적 대속죄를 위한 어머니기도"에 이매를 위함이 아닌"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East (NY, NJ, Hawaii, Brazil, Argentina, Chile, Toronto, Hawaii, Mexico)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 2018년도 남가주 크리스천대 학위수여식 일제히 5월4일 바이올라대, 벤가드대부터 6월17일 미주감신대까지

| 날짜      | 학교                         | 문의                 |
|---------|----------------------------|--------------------|
| 5/4     |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배리 코리 박사)       | (562)903-6000      |
|         | 벤가드대학교(총장 마이클 빌스 박사)       | (800)722-6279      |
| 5/5     |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     | (626)857-2200      |
| 5/12    | 서던캘리포니아신학교(총장 개리 쿨스 박사)    | (888)389-7244      |
|         | 호프인터네셔널대학교(총장 존 대리 박사)     | (714)879-3901      |
| 5/18    | 게이트웨이신학교(총장 제프 로그 박사)      | (909)687-1800      |
| 5/18-20 | 채프먼대학교(총장 다니엘 스트롭파 박사)     | (714)997-6815      |
| 5/19    | 에반겔리아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        | (714)527-0691      |
| 5/21-22 |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프리 칸 박사)      | (909)447-2500      |
| 5/23    | 갈보리체폴성경대학(총장 브라이언 브로더슨 박사) | (951)696-5944      |
| 5/26    | 웨스트민스터신학교(총장 김은일 박사)       | (760)480-8474      |
| 6/2     |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 (323)643-0301      |
|         |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 (562)926-1023      |
|         |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 (213)388-1000      |
| 6/4     |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 (714)525-0088,0089 |
| 6/9     | 폴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        | (626)396-6011      |
|         | ITS(총장 이승현 박사)             | (626)448-0023      |
| 6/16    | 베데스다대학교                    | (714)517-1945      |
| 6/17    | 미주감신대학교(총장 임승호 박사)         | (213)386-0080      |

2018년도 남가주지역 크리스천 대학교 입학기 학위수여식이 오는



총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전KBS아나운서 신은경 권사 간증집회에서 신은경 권사가 간증하고 있다

## 전 KBS아나운서 신은경 권사 초청 총현선교교회 간증집회, '홀리스피치' 주제로

신은경 권사 간증집회가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18일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이날 민종기 목사 소개를 받고 단위에 오른 신 권사는 '홀리스피치'(잡 18:21)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신은경 권사는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유교 집안에 2남2녀 맏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재정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알뜰하게 하셨다. 중2 때 심근경색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 후 어머니가 교회에 가라고 하셨다. 아마도 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사님의 이야기 듣고 자라면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81년부터 92년까지 뉴스를 진행했다. 92년에 뉴스를 그만두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 방송국으로 복귀하거나 대학에 가서 후배들 키우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게 됐다"고 말하며 "남편은 모태신앙이다. 살면서 보니 모태신앙은 뼈 속 깊이 하나님자녀다. 결혼할 당시 정치계에 있었다.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도와야겠다 생각했으며 국회 의원을 두 번 했다"고 말했다.

신은경 권사는 "어느 날 예배 중

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을 울렸다. 동굴 속 울림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으로 쳐다보게 됐다. 하나님께 저 아시냐고 여쭙다. 세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리 내서 말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다. 40살이 다 될 때까지 고아처럼 살았다. 하나님아버지 찾은 기쁨도 있지만 고아처럼 산 40년 동안 삶이 안타까웠다. 그후 시련과 고난도 있었지만 날마다 햇빛 내리쬐는 날처럼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탈북자 토크쇼 & 통곡기도대회

탈북자 토크쇼 & 북한 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곡기도대회가 그날까지선교연합(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주최로 29일(주) 오후 4시30분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49)297-3788

### 제 6회 청소년 효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하는 제 6회 미주청소년 효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이 실시된다. 응모대상은 초등부(1-5학년)과 중·고등부(6-12학년)이며 응모주제는 효, 이웃과 친구와 나누고 싶은 축복들에 대해 글짓기(레터용지 3장, 글자크기 12), 그림(크레파스화, 수채화, 드로잉, 아크릴 등)으로 초등부(1-5학년)는 14인치 X17인치, 중·고등부(6-12학년)는 18인치X24인치)는 제출시 작품 뒷면에 10줄 이내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글짓기는 이메일(hyosarangus@gmail.com)로 제출해야 하며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해야 한다. 참가비는 10달러(check payable to Hyosarangus). 마감은 5월 25일(금), 시상식은 6월 16일(토) 오전 10시 플라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갖는다. 대상(2명) 상금 500달러, 최우수상(4명) 상금 300달러, 우수상(6명) 상금 200달러가 수여되며, 특별상과 장려상은 상품, 그리고 HAVEN상은 장학금이 수여된다.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 R2R 연합찬양축제

R2R 연합찬양축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29일(주) 오후 4시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226-0300

### 나침반교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영 목사)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27일(금) 오후 7시 30분에 갖는다. 이날 기도회 특별강사로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가 말씀을 전한다.  
▲문의: (562)691-0691

### 헬리웃효순장로교회 1일 신약성경통독집회

헬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는 1일 신약성경통독집회를 5월 28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갖는다. 이번 집회는 교역자, 선교사, 평신도, 학생 등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점심, 저녁, 간식 제공)다.  
▲문의: (213)268-3589

### 연목회 회장단 이취임식

연목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29일(주) 오후 4시30분 사우스베이션교회(담임 조종곤 목사 25512 Walnut St. Lomita)에서 갖는다.  
▲문의: (714)353-8501 총무 정효남 목사

### 두마니스장로교회 교회이전

두마니스장로교회가 얼바인 지역(18004 Sky Park Circle #260)으로 이전했다.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9시30분(영어), 11시(한국어)로 진행된다.  
▲문의: (714)595-6636



남가주사랑의교회 교회타생 30주년 블레싱 콘서트에서 연합성가대가 사랑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합창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이날 격려금을 전달받은 6개 단체 대표들 모습

## "하나님 이름 높이고 축복이 유통되는 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설립30주년 블레싱 콘서트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교회설립 30주년 블레싱 콘서트를 21일 저녁 7시 성광리에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 젊은이 사역팀의 난타공연, 예향/사론찬양대(지휘 이영진 목사)의 합창, 고등부 바둑위십팀의 바둑위십이 있었다. 이어 오정현 목사(본 교회 개척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본 교회 2대 담임/분당 할렐루야교회),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박현식 목사(얼바인사랑의교회), 김대순/성숙 선교사(태국), 조용중 선교사(글로벌호프 대표) 등이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본 교회 연합성가대와 사랑오케스트라(지휘 조성환 목사)가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를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노창수 담임목사는 환영 및 인사말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 말하며 "30년을 함께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 축복의 유통이 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흥정길 목사(남서울은교회 회원)가 축사했다. 한편 이날 6개 단체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Impacting Hearts, Project Kinship, Anaheim Police Department Cops 4kids, 한인가정상담소, 코리아복지센터, 푸른초장의집에게 각각 5천 달러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콘서트는 노창수 담임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평안교회 창립 43주년 봄철부흥성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손인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여호와께 돌아가자", 강사 손인식 목사 미주평안교회 설립 43주년 봄철부흥성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설립 43주년 봄철부흥성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호6:1-3)라는 주제로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 임승진 목사 인도로 22일 오전 11시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서기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시운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손인식 목사(그날까지선교연합 국제대표)가 '승리 중의 승리'(창 50:15-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손 목사는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중 하나는 성공이라는 단어다. 승리는 단어는 떨리게 한다"며 "분명한 것은 모든 성공이 다 승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얻는 성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곧 승리가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승리 중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불행에 벗어나고 슬픔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해졌다는 것은 승리 중의 승리"라 강조하며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다.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처럼 예수그리스도의 그림자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6회 소망포럼이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 주제로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 6회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주최 제 6회 소망포럼이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라는 주제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소망포럼은 덩 트린 박사(UCI)의 대 부교수, 알츠하이머 OC 협회(이사)가 '알츠하이머 질병의 현재 및 미래의 치료법'에 대해서, 엔지 예(LA알츠하이머협회) 선생이 '치매에 관한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김예린 선생(카이론 토털 헬스서비스 디렉터)이 '치매 환자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엔지 예 교수는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인식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이 많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하며 "한인들이 많은 수가 보혈혜택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지 예 선생은 "아시아들은 치매에 대해 무뎠게 생각해서 잘 알리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매에 대해 대화를 자주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여러 봉사단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린 사회복지사는 "치매는 진단이 내려진 후 3-20년 정도 걸

리는데 보통 사망까지는 8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하고 "치매초기진단을 놓치는 이유 중에는 가족과 배우자가 치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인해 놓치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선생은 "간병인은 치매환자를 돌보다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다. 심할 경우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며 "간병인이 하루 5분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 간식이라도 갖다 주는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덩 트린 박사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매일 30분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뇌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둑, 퍼즐, 장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잠은 하루 7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하며 사회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음식을 잘먹는 것이 좋은데, 야채, 약간의 레드와인, 섬유질,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장학후원의 밤에서 웨인 양 학생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있다

## 장애피아니스트 웨인양에 1천불 전달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장학후원의 밤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장학후원의 밤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라는 주제로 22일(주) 오후 5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전현미 회장은 "장학후원의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찬양에 대한 열정에, 어떠한 장애와 환경이 가로막지 않음을 몸소 보여준 웨인양 학생과 참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의 환영인사와 교회

기도로 시작된 장학후원의 밤은 LA영 플레이어스(지휘 줄리조), 랜디 밴드, 첼리스트 릴라양, 카이로스 싱어, 그랜드 페스티벌과 이어(지휘 강민석)가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선보였으며 메인 게스트 웨인양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시간을 가졌는데 웨인양 학생에게 1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행사는 백경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9면에서 계속)  
제39회 미주성결교회 총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최경환 목사(LA지방회/시온성결교회) △부총회장: 김용배 목사(북가주지방회/실로암교회) △장로부총회장: 장석면 장로(중앙지방회/뉴욕성결교회) △서

기: 이병림 목사(캐나다지방회/토론토한인교회) △부서기: 문광수 목사(중부지방회/워싱턴한우리교회) △회계: 한상훈 장로(북가주지방회/산호세중앙교회) △부회계: 송상례 장로(중부지방회/워싱턴인교회).  
(박준호 기자)

##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

기독교법률가회 성명서 내고 총회재판부에 판결 촉구

기독교법률가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부에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기독교법률가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

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히 유효한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법 전면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다”라

## ‘통일 소원 특별 기도회’ 열린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세운 33개 교회 1000명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세운 33개 교회와 탈북 기독교인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도회가 열린다. 통일소원기도회 조직위원회(회장 강철호 목사)는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통일 소원 특별기도회’(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 교회와 기독교 탈북민 1000명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이 참석하는 기도회가 될 전망이다.

기도회에서는 평화적 남북통일과 북한 및 탈북민 복음화 등을 농

고 기도할 예정이다. 특히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기도회인 만큼 모든 순서를 탈북민이 맡는다. 기도회가 열리는 4시간 동안 탈북 목회자 7명이 돌아가며 기도회를 인도한다. 또 탈북민 성도들이 고향의 부모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및 한국 정착 수기를 낭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기도회는 지난해 말 탈북민 목회자들의 중지를 모아 조직한 행사다. 탈북민이 자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데 착안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법률가회는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하루 빨리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기획한 강 목사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탈북민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가 한반도에 두 정부가 들어선 정국 70년을 맞는 해라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정상회담 다음 날 열리게 됐다”며 벅찬 마음을 전했다.

이어 “기도회는 북한과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통곡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평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기도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 CTS ‘목사님 어디 가세요?’ 방영

LA 50대 목회자 4명의 삶과 신앙 이야기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4명의 본격 여행토크 프로그램 ‘You Vadis, Pastor(퀴바디스 파스토르): 목사님 어디 가세요?’를 다음 달 8일까지 방영한다.

지난 3월 첫 방영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안방극장을 찾아가는 퀴바디스 파스토르는 50대 초·중반을 맞이한 네 명의 목회자가 길 위의 벗이 돼 함께 떠나

는 여행길 이야기이다.

길을 떠나는 4인방은 LA의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 한성운(나성남 프로그래머 ‘Qou Vadis, Pastor(퀴바디스 파스토르): 목사님 어디 가세요?’를 다음 달 8일까지 방영한다. 지난 3월 첫 방영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안방극장을 찾아가는 퀴바디스 파스토르는 50대 초·중반을 맞이한 네 명의 목회자가 길 위의 벗이 돼 함께 떠나

1박2일 동안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유적지와 바닷가,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나이가 든다는 것, 목회자로서의 진솔한 고민 등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어느새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친구가 된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CTS 아메리카 측은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동행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면 한다”고 했다.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CTS 아메리카는 현지 제작을 통해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 왔다.

## 종교자유 주체 ‘국민 →사람’ 으로 바뀌면…

한국교회법학회 주최 ‘개헌 논의와 한국교회’ 학술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재)는 19일 교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눈길을 끈 조항 중 하나는 제11조다. 기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장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 문장 뒤에는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교계의 큰 관심사인 동성애, 무슬림 문제 등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심이석(서울 화목교회) 목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목사는 “종교의 자유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헌안을 반대한다”며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이슬람 등 종교 문화의 다양성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음선필 교수가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음 교수는 개헌안 제9조에 담긴 ‘문화의 다양성’을 유럽의 예시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전부터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그 결과 이는 반유럽 정서를 담은 이슬람 문화가 득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의 지방자치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면 국가의 통일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 관련 각 지방정부가 상이한 입장을 취해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송실대 김경우 법학박사는 “인권의 신장 측면에서 본다면 개헌안은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에 이슬람 확산을 경계하는 보수 기독교의 입장은 지나치게 공안적 시각”이라며 “성서적 가치를 보수하는 일도 중요하나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타종교에 대한 경계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서와 반대되는 동성애 가치조차 수용하려는 진보 기독교의 입장은 세속적 인본주의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지방분권 지향에 의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음 교수의 주장과도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에 대해 “오 목사 개인과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의 과정이든 편목편의 과정이든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위임을 결정할 총회와 노회에 청구해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유 민주주의 국가제체인 대한민국은 엄격히 정교분리가 법적으로 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이전의 미덕과 전통으로 여겨 왔지만 이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교회의 문제는 교회내부에서 해결하는 아름답고 성경적인 전통을 새로 수립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고시부, 실행위 결의 이행하라”

예장합동, 신대원생 강도사고시 응시자격부여 조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20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고시부(부장 이종철 목사)에 ‘제2차 실행위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졸업거부에 나선 신대원생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실행위는 지난 1월 결의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을 이행하지 않는 고시부에 대해 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키로 하고 제2차 실행위 결의가 이행되기 전까지 고시부가 서류 심사를 중지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총회고시부는 지난 18일 제9차 임원회에서 올해 강도사고시 응시생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지 못했다. 총회임원회가 고시부에

응시서류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1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졸업증명서 대신 총회장과 운영이사장이 발급한 특별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결의했다. 하지만 고시부가 출근 ‘벌과 원칙대로 강도사고시를 진행하겠다’고 고수함에 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총신대 사태로 인해 ‘졸업거부’에 나선 신대원생들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대로 서류 심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 200여명이 서류미비로 인해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실행위에서는 ‘총신사태 중간 결과 보고’도 진행했다. 총회 서기 권순운 목사는 학생들의 점거농성, 학교 측의 용역 직원 투입으로 인한 총동, 교육부의 실태 조사 및 결과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총신대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은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과 부역자들을 즉각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실행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시부장과 수차례 만나 ‘총회의 지도를 잘 따를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며 “신대원생들이 문제없이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총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총신대 측이 이의제기를 통해 법적 투쟁에 나선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더 이상의 상처와 아픔 없이 사태를 마무리 하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엔 좀 더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행위 현장에는 총신대 신대원 비상대책위(위원장 곽한락 전도사)측 학생들이 방문해 피켓을 들고 ‘김영우 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또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으로 김영우 총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학생 7인에 대한 탄원을 호소했다.

## “40일 24시간 기도가 부흥·통일 마중물 될 것”

29일부터 열리는 기도회 준비하는 이주만 선교사

남북 정상회담 이틀 뒤인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40일 기도)가 개최된다.

기도회 장소는 경기도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 벨엘성전으로, 한국 미국 브라질 스웨덴 일본 베트남 등 국내외 70여개의 교회와 신자, 예배팀 등이 참여한다. 개회 기도회엔 로렌 커닝햄 YWCA 총재와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17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주만(43·YWAM 코나 열방대학) 선교사는 “이번 기도회는 무명의 그리스천들로부터 시작됐다”며 “기도회는 통일과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도회는 4년 전 한국계 미국인 마크 조 목사(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DTS 학교장)의 비전 나눔으로 시작됐다. 조 목사를 중심으로 이 선교사 등이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 한국의 제주 열방대, 한동대,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등에서 집회를 열어 40일 기도를 준비했다.

이 선교사는 40일 기도의 핵심은 회개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려 한다. 그런데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

## “탈핵 및 에너지 전환문제 교회가 앞장서자”

핵그런, ‘핵 넘어 은혜의 삶으로’ 선언문 논의 후 채택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운동에 앞장서자는 주장이 나왔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핵그런)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한 ‘2018년 제7차 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핵그런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등 교계 환경·시민단체 및 개교회가 참여하는 연합단체다.

이날 핵그런은 총회 회무 처리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탈핵 정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 산업계가 속히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탈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교회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의 길잡이가 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회 건물 및 기독교인 기업과 가정마다 햇빛 발전소를 세울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운동을 위해 각 교단과 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내용도 담았다. 핵그런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구 수정을 포함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만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탈핵 및 에너지 전환문제 교회가 앞장서자”

핵그런, ‘핵 넘어 은혜의 삶으로’ 선언문 논의 후 채택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운동에 앞장서자는 주장이 나왔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핵그런)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한 ‘2018년 제7차 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핵그런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등 교계 환경·시민단체 및 개교회가 참여하는 연합단체다.

이날 핵그런은 총회 회무 처리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탈핵 정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 산업계가 속히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탈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교회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의 길잡이가 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회 건물 및 기독교인 기업과 가정마다 햇빛 발전소를 세울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운동을 위해 각 교단과 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내용도 담았다. 핵그런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구 수정을 포함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만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술 권하는 ‘음주 방송’ 규제해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금주금연정책 건의문 발표

토크쇼 진행자가 술집 주인으로 나와 출연자들과 함께 각종 술을 마신다. 술자리를 그대로 옮긴 듯한 예능 프로그램, 이른바 ‘음주 예능’은 한 케이블채널에서 2016년부터 방송 중이다. 한 지상파 방송에서도 예의가 아니다. 출연자가 생수통에서 소주를 따라 마시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음주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된다. 드라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주 운전 하는 모습까지 나온다.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빈번한 음주 장면에 대해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절제회·회장 김영주)가 제동을 걸었다. 절제회는 24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 절제회관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방송의 음주 미화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2018년 금주금연정책 건의문’을 발표했다.

선다”며 “자신과 가정,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40일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 지역과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며 “무너지고 깨진 관계가 새롭게 되고 화해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40일 기도를 통해 한반도에 또 한번의 부흥이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하나님 코리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0일 기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설교 시간은 따로 없으며 찬양과 기도를 24시간 연속한다. 현재 40일 기도를 위해 봉사할 예배팀의 신청을 받고 있다. 기도회는 6월 8일까지 열린다(010-6786-3719).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탈핵 정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 산업계가 속히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탈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교회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의 길잡이가 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회 건물 및 기독교인 기업과 가정마다 햇빛 발전소를 세울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운동을 위해 각 교단과 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내용도 담았다. 핵그런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구 수정을 포함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만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탈핵 정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 산업계가 속히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탈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며 “교회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의 길잡이가 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회 건물 및 기독교인 기업과 가정마다 햇빛 발전소를 세울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운동을 위해 각 교단과 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내용도 담았다. 핵그런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구 수정을 포함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만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 절제회는 “한국에서는 방송 매체가 술을 권한다”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대에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장면과 음주 예능은 대중, 특히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하는 일등공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했으며 미국은 경기장 내 주류 광고 및 인기 연예인이 주류 광고 모델에 나서는 것도 금하고 있다”며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에 벗어나는 음주행위 묘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토소 선교칼럼 (4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조지 매들리의 놀라운 변화

어떤 분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가 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조지 매들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조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담스 카운티에서만 투옥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했던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도소에서 전도지를 하나 주어서 읽은 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지는 마약의 삶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감할 때, 출소 후 처음으로 배는 1000달러를 선교 헌금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벌어서 그의 아내에게 1000달러가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 돈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지를 만난 곳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의 친척이 그를 방문하러 왔다가 제가 쓴 '치유, 사랑 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았으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계기로 제가 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의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도 시작하여 예배가 끝나면 선물을 주는 교회로, 매주 누군가는 100달러를 받는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 중고차를 팔았을 때는 매주 제비를 뽑아서 차를 하나씩 거저 주고 또 지금도 매주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교도소도 방문하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여러 나라의 선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의 교회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조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나에게 조지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지가 변호사에게 1만 달러를 주고 그 청년을 도와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되어서 그는 평생을 조지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이 있을 때 10달러씩이라도 조지에게 빚을 갚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조지의 놀라운 신앙 간증 이야기 "승리의 행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재소자들의 영적인 변화의 간증으로 엮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도 넣으라고 해서 조지와 그의 아내 아린의 이야기를 그 책에 실었습니다. 조지와 아린은 가끔 변화프로그램 문서선교에 선교헌금도 하고 또 변화프로그램에서 출판한 책들을 많은 교도소에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해에 문서선교의 책들 중에 이란어로 4권의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주문을 많이 못해서 책이 벌써 다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 사람들

이 여러 다른 나라의 교도소까지 이 책들을 보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교헌금이 모아져야 가능하므로 선교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한 권씩 1000원씩 주문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4권의 이란어 책을 한꺼번에 1000원씩 발행하려면 1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 목사님께 어떤 책을 먼저 발행하기 원하느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란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한 다음 날,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지가 문서선교를 위해 1만 달러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시 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헌금을 이란어 책 4000권을 출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단 돈 1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을 위한 문서선교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하므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변화프로그램 문서선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개인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변화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 같지 않는데도 계속 많은 책을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선교헌금을 후원함으로써 놀랍게도 이 선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둠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프로그램 교도소 문서선교는 계속 재소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의 씨를 문서를 통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놀랍게 재소자들의 영적인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문서선교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서선교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도 후원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제 25회 유럽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탈리아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가 화형 당한 피벤체의 시노리아 광장.

## "유럽 선교의 나아갈 길...진리 사수"

### 유럽목회연구원 주최, 제 25회 유럽목회자세미나

유럽목회연구원(원장 한평우 목사) 주최 제 25회 유럽목회자세미나(EMI)가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포메리아 지역에 있는 안도넬라 호텔에서 열렸다. "21세기 유럽 선교의 나아갈 길" 부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행19:21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번 세미나는 모로코, 일본, 알바니아, 독일, 영국,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미국, 한국 등 15개국에서 약 100여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들이 참석하였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한평우 목사(로마한인교회)는 '이사를 만나주신 하나님'(사6: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로마는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았던 곳이다. 진리를 피수하기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영적 선배들의 핏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들은 고통의 현장인 음습한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대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변질되고 있다. 내세보다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 이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슬림들의 선교 전략에 대한 사역 소개가 있었다.

K 선교사는 "M지역은 미성년자에게 전도하다가 걸리면 구속되고, 종교가 바뀌면 사형 당한다. 의료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재진 선교사(알바니아)는 "알바니아는 190년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문호가 개방됐다. 개신교는 0.3%다. 무료로 봉사하고 영어 캠프를 통해 무슬림 현지인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박헌승 목사(캐나다 서부장로교회)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벘2:13)이란 주제로 "바울에게 뜨거운 소원이 있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으로 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꿈, 비

전, 열정은 사그라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EMI가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야 한다. 유럽 선교 나아가는 길은 성령으로 뒤집어 지는 길 밖에 없다"고 전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 박명홍 목사(근자중앙교회)는 "누가 영적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삿 8:1-9)란 주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이 뒤늦게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칭찬했다. 그러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사역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공격이 많다. 좌절과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비난, 조롱, 위협, 억울함도 잘 견뎌야 한다. 영적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기드온은 다치지 않고 전쟁에 집중해서 승리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신앙의 입급 가지 악"이란 주제로 전했다.

심 목사는 "1)시부모에게 불순종한 경우(엢6:1)-부모 공경해야 한다. 2)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창5:21-23)-전도 많이 해야 한다. 3) 음탕한 경우(갈5:19-21)-목회자는 돈, 이성, 명예를 조심해야 한다. 4) 질투하는 경우(갈5:21)-서로 잘 되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5)나쁜 병이 있는 경우(신28:15-22)-의심, 미움, 다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6)말이 많은 경우(잠10:9)-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7)도둑질 하는 경우(말3:8-10)-십일조, 감사하라"고 강의했다.

한별 총장(순복음대학원대학교,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은 "풀림"이란 주제로 "인간관계가 풀려야 한다. 학업과 사업, 물질, 결혼, 직장, 목회, 선교도 풀려야 한다. 특히 하나님과 풀려야 한다. 우리는 돈이 없지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풀림은 성령운동의 뜨거움으로 풀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

(14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   |  |   |   |   |   |  |
|---|--|---|---|---|---|--|
| <h3>갈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웅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오후예배: 오후 7:00<br/>주요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br/>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 <h3>몽고메리교회</h3> <p>담임목사: 최해근<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기도회: 오후 8:00<br/>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br/>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br/>www.omvchurch.org</p>                | <h3>벅스카운티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종운<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영 아예 배: 오전 10:00<br/>수요오후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br/>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 <h3>벤넬교회</h3> <p>담임목사: 백신종<br/>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br/>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br/>EMI예배: 오전 10: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br/>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br/>http://www.bethelchurch.org</p> | <h3>보스턴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장성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요찬양예배: 오후 5:3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Fax: (704)529-0900<br/>2 Main St., Hkinton, MA 01748</p>  | <h3>샬럿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나성균<br/>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br/>토요새벽기도: 새벽 6: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대학청년부: 오후 1: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0:45<br/>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br/>701 Scaleybar Road, Charlotte, NC 28209</p> |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 <h3>시애틀평강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일<br/>주일영예배: 오전 10: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저녁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br/>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br/>www.kpcpsattle.org</p>               | <h3>안다옥교회</h3> <p>담임목사: 강준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7:00<br/>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br/>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 <h3>알라사 제자들교회</h3> <p>담임목사: 전남수<br/>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7:30<br/>새벽예배: 오전 8: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br/>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br/>www.ljrs.org</p>                                       | <h3>앵커리지델리문교회</h3> <p>담임목사: 유재일<br/>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영아예배: 오전 11:00<br/>주일전일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br/>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 <h3>엘파소델리문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해: (915)751-4365<br/>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 <h3>영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백운영<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부흥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주요기도회: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br/>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 <h3>킬린노루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현<br/>주일예배 1부: 오전 9:00<br/>주일예배 2부: 오전 10:50<br/>수요찬양예배: 오후 7: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토요청년모임: 오후 3: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br/>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 <h3>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세영<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기도회: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br/>Tel: (703)941-4447, Fax: (703)941-4448<br/>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 <h3>주예수교회</h3> <p>담임목사: 배현찬<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찬양: 오후 8:00<br/>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jkc.org<br/>Tel: (804)560-7500, Fax: (804)560-7514<br/>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 <h3>타코마 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창호<br/>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br/>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br/>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br/>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br/>수요예배: 오후 7시<br/>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br/>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br/>www.lacmccr.com</p>   | <h3>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조진모<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영아예배: 오전 11:00<br/>주일부흥예배: 오후 2:00<br/>주일전일예배: 오후 7:45<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br/>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br/>www.kcujo.org</p> | <h2 style="text-align: center;">아리조나 기도원 매매</h2> <p>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7.3에이커</li> <li>· 건물 3동과 예배실</li> <li>·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li> </ul> <p style="text-align: right;">문의: 623-326-5532</p>        |  |

### GMS브라질신학교 사역에서 본 변혁과 갱신(1)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필자는 36년 전 브라질 파송선교사로 명받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사역을 하였다. 그중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섬긴 사역이 신학교 사역이다. 브라질에 최초로 세운 국제성서대학(김승곤 부교수장학사 이사장 목사), 국제성경신학교(박재호 목사 설립), 개혁웨이신학교(맥킨타이어 브라질분교 김해성 박사), 남미개혁신학교(미주총회) 등에서 교수로 봉직했으며 브라질GMS신학대학(현진인 신학교) 학장으로 14년째 섬기고 있다. 제가 맡은 발제안은 신학교 사역분과이다. "GMS브라질 신학교사역에서 본 변혁과 갱신"이다. 이 글이 세계 각처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과 후원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구전통교회 역사와 남미문화와 상황

지배국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가져온 아프리카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 한 대륙에서 부딪쳤다. 여기에 20세기부터 본격화된 이민 행렬도 남미 신학교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의

엄청난 경악심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해방신학은 민중의 신을 속에 동참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 내려는 신학방법을 채택하였다. 출3장7-8절 말씀처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

### 3. 신은사운동과 변역신학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최근 브라질 개신교의 성장은 해방신학이 아닌 신은사운동과 변역신학에서 대부분이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네스토르 목사는 이렇게 분석했다. "해방신학은 철저한 종말론적 신학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생명과 정의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자는 참여적 신학"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아들이 고열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혁명의 시간은 영원처럼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머리에 손을 얹은 목사의 기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은사주의 운동과 "당신도 부자 될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변역신학과 비교할 때 해방신학자의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풍요로운 생명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말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다

### 탄자니아 미술선교단 모집

수국미술선교회(회장 유경옥 선교사)가 탄자니아 미술선교단을 모집한다. 오는 8월 2일(목)부터 13일(월)까지 10박12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어린이 심령에게 복음과 미술을 통한 선교를 하게 된다.

장소는 탄자니아 훌리네스 이반젤리컬 교회 내의 Upendo(사랑) 유치원(담당자: 이진용 선교사)과 잔지바르 마혼다 지역(담당자: 유근원 선교사)으로 선착순 15명에 한한다. 미술작가 및 동반 동역자가 참석할 수 있다. 선교목적은 말씀증거, 사랑유치원

및 교회 벽화를 어린이와 함께 제작한다. 그 외에 그림 성경동화 읽어주기, 여행 중 수시 스케치 등이 진행된다.

구체적 일정은 △2-4일: 탄자니아 사역 △5-9일: 주일예배, 리빙스턴 사역지 탐방, 세링게티 사파리, 킬리만자로 △9-12일: 잔지바르 스펀타운, 프리즌 아일랜드, 파제, 더랑, 농구, 주일예배.

모든 경비는 자비량이며 선교비 2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 010-5523-8063(이희경 간사)



자신의 작품 앞에서 선 유경옥 선교사

### 유경옥 선교사 개인전

한편 유경옥 선교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뉴욕 맨해튼 K&P 갤러리에서 개인전시회를 가졌다.

"Solidarity"(Time of Cure with the Print on Scarf)라는 주제로 전곡인 유희에 지난해부터 시도해온 실크스카프를 엮어 작품화 한 것으로 작품 뿐 아니라 실크 스카프도 판매한다.

유 선교사는 주제 "Solidarity"에 대해 "지난해 여름 끝자락, 고흐가 파문히 다자를 했던 생레미(Saint Remy)의 요양원에서 고흐를 만났으며 평소 멀었던 고흐의 아픔과 꿈이 보였고, 그

정원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화폭에 담았다"고 설명하고 "그 스케치가 실크 스카프로 나왔을 때 작품 속으로 들어가 오브제트로서 고흐의 붉은 상처를 싸매주었다"고 작품설명을 밝혔다.

유 선교사는 또 "연대감으로 성령의 바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북의 상처도 싸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경옥 선교사는 성신여대와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뉴욕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공부했으며 동부개혁신학교신학교와 UTS(D.C.E), 킹스유니버시티 신학교(D.C.E)를 졸업했다.

(유원정 기자)

### (13면에서 계속)

그리고 사도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도착했던 보디움(행28:1, 현 Pozzuoli)를 들춰보았다. 바울의 친히 밭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격스러웠다.

또한 이튿날 카타콤베에서 성도들이 치열한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은 믿음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까라는 숙제를 받았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순교 당했고 극심하게 핍박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목욕탕을 건축하게 한 후 모조리 죽인 그리스인 된 로마군인들 10,203명의 피가 강같이 흘렀던 사형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이들의 순교의 피가 살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이다.

B팀은 피렌체에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다가 바티칸의 미움을 받아 화형을 당한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1452-1498)의 처형 장소에

서 한참을 서서 묵상을 하였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나는 추기경이 쓰는 빨간 모자보다 주님께서 흘러진 십자가의 빨간 피를 더 사모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높이 매달려 화염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그의 불탄 시신은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록 가루로 만들어 피렌체를 관통하는 아르노(Arno)강에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열매를 맺어 정확하게 19년 뒤인 1517년에 수도사 말틴 루터로 하여금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만들었다.

이번 세미나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선배들의 치열한 신앙투쟁의 현장을 돌아보며 새롭게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

(기사제공: 유럽목회연구원)

### 1. 다양성속의 통합

브라질 교회는 유럽의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서구전통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브라

### 라틴아메리카 신학과 교회 키워드는 "다양성 속의 통합"

불의한 사회체제와 야합해 기생해온 제3세계 기독교에 대한 각성으로 해방신학 탄생

최근 브라질 개신교는 신은사운동과 변역신학으로 성장

질 선교와 신학을 논하려면 브라질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라야 브라질 사람과 브라질 교회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네스토르 미게스 목사(해방신학자이며 감리교 목사, 아르헨티나 개신교연맹(FAIE)의 의장이며 남미의 대표적 신학자 호세 미게스 보니노(1924-2012) 교수의 아들)는 "남미의 신학교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미 대륙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통합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교 교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고 했다. 이 말은 참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전래 당시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한 국가의 달리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는 유럽국인들이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한 당시 이곳에는 잉카문화와 마야문화 외에 500-600개의 다른 언어와 종교, 문화와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기독교는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 안에는 여러 다양한 색채들이 덧칠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해방신학의 탄생

브라질과 남미를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신학은 해방신학이다. 남미 해방신학은 이 같은 문화와 종교적 다양성 위에 이 땅을 정복자들의 식민정책으로 말미암아 착취, 빈곤, 억압, 불평등, 처참한 박해와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상황과 우민정책 속에 문맹, 실업 가난의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회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해방신학이 탄생하였다.

서구신학자들은 신학은 절대 진리이고 크리스천은 그 진리대로 살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즉 제3세계 그리스도교는 불의한 사회체제와 야합해서 기생해 온 종교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상의 구령사업은 등한히 할뿐 아니라, 교회가 민중을 위하고 민중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 있다는

의 감동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말씀처럼 해방신학자 이그나시오 엘라구리아(라틴아메리카 민중과 더불어 25년간 일해 온 스페인계)는 "불의한 폭력과 폭력의 죄악에 저항하는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즉 오늘 날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역할은 정치적이며 종교적이자 그리스도적 개념인 해방과 불가분리로 결합되어 있다"며 "폭력과 심자기"는 혁명적인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브라질은 유럽이 옮겨왔다고 해도 될 만큼 정치, 사회, 문화, 건축 및 다양한 음식문화까지 유럽에서 자연스럽게 옮겨와 브라질과 남미 사람들 속에 친숙해져 있지만 종교만큼은 다르다. 유럽은 신학과 사회학이 서로 분리돼 있지만 유럽의 신학이 남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의 문제와 만나면서 통합과 적응력을 가진 새로운 신학 곧 해방신학을 만들어졌다

### 4. 개신교를 대표하는 하나님 의성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강세이고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로마에서는 카톨릭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강세인데 브라질은 하나님의성회이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하나님 의성회 교회는 변역신학과 신은사운동을 채택하므로 큰 부흥을 가져왔다.

### 논의:

1)복음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신학의 전통과 역사는 존중하되 너무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문화와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다.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떻게 복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2)오랜의 교회가 회복하려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  |   |   |  |   |  |  |
|--|---|---|--|---|--|--|
| <p><b>금관교회</b><br/>담임목사: 김정민<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주일5부예배: 오후 7:30<br/>www.kumman.org<br/>Tel: (82)2-490-7000, Fax: (82)2-436-5770<br/>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 <p><b>든든한교회</b><br/>담임목사: 장양희<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주일5부예배: 오후 7:00<br/>수요예배: 오전 11:00, 7:00<br/>금요예배: 오후 9:00<br/>Tel: (031)977-8393~9, Fax: (031)977-8382<br/>(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 <p><b>로마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한평우<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 오전 6:00(매일)<br/>Tel: 39-06-827-3285, 39-348-339-1726<br/>39-06-840-3676(교우실)<br/>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 <p><b>새이덴교회</b><br/>담임목사: 소강석<br/>주일1부: 오전 7:30<br/>주일2부: 오전 9:30<br/>주일3부: 오전 11:00<br/>주일4부: 오후 12:30<br/>주일5부: 오후 2:30<br/>새벽기도: 오전 6:00(매일)<br/>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br/>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 <p><b>성문교회</b><br/>담임목사: 황정식<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후 3:30<br/>새벽1부예배: 오전 5:00<br/>새벽2부예배: 오전 6:30<br/>Tel: (82)2-2646-3191~3, (82)2-2646-3184<br/>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p>  | <p><b>성실교회</b><br/>담임목사: 김영복<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3:00<br/>www.seongsil.or.kr<br/>Tel: (82)2-998-9888, Fax: 3927-1008<br/>서울 강북구 우정동 221-49 (142-073)</p>                            | <p><b>성일교회</b><br/>담임목사: 김정곤<br/>주일1부예배: 오전 5:3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5부예배: 오후 3:00<br/>수요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無し)<br/>Tel: (82)2-2643-8553~4, Fax: 2648-4662<br/>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8호</p> |
| <p><b>수정교회</b><br/>담임목사: 조일래<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수요예배: 오후 7:30<br/>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br/>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 <p><b>승등교회</b><br/>담임목사: 박상훈<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수요예배: 저녁 7:00<br/>Tel: (02)732-2341~3, FAX: (02)389-2235<br/>(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p>   | <p><b>시온소교회</b><br/>담임목사: 김성길<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새벽기도: 오전 5:00(월-토)<br/>Tel: (031)253-1004, Fax: (031)253-1010<br/>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로 419-2</p>  | <p><b>신길교회</b><br/>담임목사: 이기용<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3:00<br/>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br/>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 <p><b>신천교회</b><br/>담임목사: 송용걸<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3:00<br/>새벽기도회: 오전 5:00(6:00)<br/>Tel: (02)418-0481 Fax: (02)422-0751<br/>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길 29(삼정동)<br/>www.shincheon.or.kr</p> | <p><b>신촌교회</b><br/>담임목사: 박노훈<br/>주일1부예배: 오전 6:00<br/>주일2부예배: 오전 7:30<br/>주일3부예배: 오전 9:3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1:30<br/>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br/>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br/>www.esincheon.org</p>              | <p><b>안암 제일교회</b><br/>주일1부예배: 오전 9:2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예배: 오후 7:30<br/>금요기도회: 오후 8:00<br/>Tel: (82)2-926-4508<br/>서울시 동대문구 광희동3길 50-1<br/>www.anamjil.or.kr</p>                                       |
| <p><b>양곡교회</b><br/>담임목사: 지용수<br/>주일예배1부: 오전 7:00<br/>주일예배2부: 오전 9:00<br/>주일예배3부: 오전 11:40<br/>주일4부예배: 오후 7:30<br/>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br/>오전 5:30/6:30/9:00<br/>Tel: (055)210-5500, Fax: (055)210-5510<br/>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20-2(146-220)</p> | <p><b>양성교회</b><br/>담임목사: 김요나<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Tel: (82)2-888-4813, 331-284-7204<br/>서울시 강서구 가리동 220-2(146-220)</p>  | <p><b>장위제일교회</b><br/>담임목사: 신일권<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새벽기도회: 오전 5:00<br/>금요음악기도회: 오후 9:30<br/>Tel: (02)942-6881, Fax: (02)942-6882<br/>(128-290) 서울시 서초구 가리동 220-2(146-220)</p>         | <p><b>주안교회</b><br/>담임목사: 주승중<br/>주일1부예배: 오전 6:00<br/>주일2부예배: 오전 8:00<br/>주일3부예배: 오전 10:00<br/>주일4부예배: 오후 12:00<br/>주일5부예배: 오후 2:00<br/>주일6부예배: 오후 4:00<br/>주일7부예배: 오후 7:00<br/>Tel: (82)2-527-1009<br/>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길 29(삼정동)</p> | <p><b>창대교회</b><br/>담임목사: 최용도<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10:2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3:00<br/>Tel: (82)2-482-3536, Fax: (82)2-488-4508<br/>(146-22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20-2(146-220)</p>   | <p><b>청주주님의교회</b><br/>담임목사: 주서백<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전 2:00<br/>주일4부예배: 오후 7:00<br/>수요예배: 저녁 9:00<br/>새벽기도회: 새벽 5:30<br/>Tel: (043)275-9191, Fax: (043)273-8114<br/>(146-22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20-2(146-220)</p> | <p><b>충신교회</b><br/>담임목사: 이진호<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8:30<br/>주일3부예배: 오전 10:0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1:30<br/>Tel: (82)2-793-7740<br/>(146-22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20-2(146-220)</p>                               |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4)

##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의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5)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토대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의 가장 큰 전제인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미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받은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남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로 그 자신이 모범을 보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부터, 그 가르치는 다음세대들을 대함에 있어 존중과 온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세대들은 그 모범을 보고 존중과 온유를 익히게 되고, 그 자신들의 삶에서도 타인들에게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존중과 온유로 대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온유하게 대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온유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혼란스러워지고 내면화 할 수

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고, 늘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다음세대들과 나누고, 실질적으로도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우리 아이들도 이를 목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은 완벽함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인식하고, 잘못을 회개할 줄 알고, 우리 다음세대들과 함께 배워나가고 또한 함께 성숙해가는 모습을 나누고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는 기본적으로 배움의 영(Teachable Spirit)이 있는 사람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다 옳다고 믿는 교만과 아집을 가지

### 교사는 언행일치의 삶 통해 도덕적 신앙적으로 본 보여야

#### 배움의 영 갖고 교만 버리며 연약 부족 인식해야

그리고 지금은 “교육자 혹은 교사”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한인교회들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자질 혹은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역량 5가지-소명, 신앙과 영성,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지식, 교육학적 기술, 그리고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적 통합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그 첫 번째로 교사의 “소명,” 두 번째로 “신앙과 영성,”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 지식”에 대해 네 번째로 “교육학적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자질 그 마지막은 “교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는 성경적으로 통합된 삶을 통해, 즉 성경적 진리가 삶의 실천 가운데 배어있고 드러나는 것을 통해, 가르치는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삶에서의 실천을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실천적 언행에서의 일치 여야만 다음세대들에게 일관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 교사가 성령을

없거나, 존중과 온유라는 성경적 가치 자체에 대해 기본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일상의 언행들이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실질적 언어로 표현되는 가르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느끼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가르침은 매우 공허하며, 언행이 불일치되는 가르침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지식만이 아닌 진정한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에 교사가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일선의 교사들은 마음이 괴로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마치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이 들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교사도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완벽한 존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숙해가는 존

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죄성을 진지하게 깨닫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다음세대들의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영이 없는 교사는 성경적 통합 교육에서 (물론 다른 방식의 모든 교회 교육과 일반 교육에서도)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움의 영이 없는 교사는 율법주의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다분하며,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강요하려고 하며, 다른 교사들까지도 자신처럼 하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힘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틀을 세우고 자기 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죄책감 없이 이중 기준을 들이대곤 하지요.

따라서 교회들은 우리 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다음세대들의 모범이 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 교사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숙해감의 의미를 심어주고, 자신을 완벽하다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짚어보아 배움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sina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삼하24:2-7)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약4:6). 성도는 교만한면 망합니다. 오늘 교훈은 주변의 바른 권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지만 늘 다윗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 용사의 이름에서도 빠진 사람인데 지금은 다윗에게 좋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에

게 지금보다 백배나 더되는 군대를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력을 더 보강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교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4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고집까지도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며 신앙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 화 그 마음에 자책하고(삼하24:8-10)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면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하는 10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칼을 빼는 당당한 자가 130만 명이 나 되니까 기분이 좋고 더 뿌듯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영적교훈은 사단이 꾀어서 일

을 이루면 아주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유혹하지만 일이 벌어진 후에는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충동해서 나쁜 일을 저질러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 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삼하24:10)

성도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주시

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났을 때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주시니. 할렐루야!

### 목 여호와께서는 공룡이 크시니(삼하24:11-14)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세 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다윗은 심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공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을 달

게 받겠다고 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처분을 맡기기도는 그 처분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와 긍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 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삼하24:15-17)

다윗은 징계가 나라에 임하니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 순간에 7만명이 죽자 다윗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 내 잘못인데 왜 양무리들을 죽이십니까?” 국가적인 재앙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다윗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의 마음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치신 것을 누우치시니

다.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썩어버리시겠다고 할 때 모세의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책임을 지고 주님께 나올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멈추시고 우리 모두는 살아남습니다.

### 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삼하24:18-19)

다윗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면서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명령에 항상 즉시 순종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재앙을 내리신 것을 돌이키시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

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19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그곳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 청빙

메릴랜드 솔즈베리(Salisbury, MD)에 위치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풀타임, 파트타임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자격: 신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사역 중 영주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 제출서류는 yellowtree36@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410-713-2896(성낙인 장로)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Salisbury, MD) is seeking a youth pastor(full-time & part-time) to lead our youth group.

- Qualification: Graduated an accredited seminary
- salary & Benefits: Competitive salary based on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 please submit a personal statement and a resume that includes a photo of yourself via email only(yellowtree36@gmail.com)
- here is no set deadline, but we will taking applications until we find someone.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Elder nakin sung at 410-713-2896.

##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어 출판물 관리 시스템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 담임 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요건**
  - 1) 경구대학, 신학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분.
  - 2) KAPC(해외한인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3)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당회원 부목사 포함)되신 분.
  - 4)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 5) 연령 45 - 60세.
-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3) 목회 비전과 소명서 1부.
  - 4) 신학교 졸업증명서.
  - 5)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 6) 목사 안수증.
  - 7) 추천서 (목회자) 2부.
  -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DVD 2편 (동영상 파일).
- 3 서류 제출처**

청빙위원회  
4839 Pearl Rd., Cleveland, OH 44109  
Email : younghlee53@gmail.com
- 4 제출 기간**

2018년 4월 30일 까지
- 5 기타**
  - 1) 서류 (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 2) 우편으로 제출 하신 분은 필히 Email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 5) 사역하신 교회마다 2분 이상의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장로)

2018년 3월 15일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8)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교 경영-책임(Accountability)과 배려

책임의 원리란 '하나님의 청지기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기독교 경영에서는 이를 '책임'의 원리로 정의한다.

책임의 원리란 '하나님의 청지기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기독교 경영에서는 이를 '책임'의 원리로 정의한다.

책임의 원리란 '하나님의 청지기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기독교 경영에서는 이를 '책임'의 원리로 정의한다.

책임의 원리-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배려의 원리-포용성, 호혜성, 사회 공헌

고객만족, 고객관계관리, 사회적 약자고용, 기부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다. 책임의 원리에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 경영자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위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와 주권과 목적은 책임의식에 근거해야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과 재능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원을 다스리고 개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원을 사용할 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효율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낭비 없이 조직을 운영함'을 의미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기업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 아닌 기업을 맡은 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기업의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생존과 발전의 기본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배려(Benevolence)의 원리가 필요하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다. 기독교 경영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배려의 원리'라 한다. 배려의 원리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원리'를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고객, 주주, 종업원, 거래처,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경영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배려의 기독교 경영 원리는 크게 포용성, 호혜성, 그리고 사회 공헌이라는 세 가지

사회공헌(Social contribution)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필요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보호와 구제 등과 같은 사회 곳곳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배려의 원리들을 기업경영에 적용한 사례로 기업조직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든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Fair trade)을 통해 약자들을 보호한다든지, 시장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만족, 고객관계관리(CRM) 등도 호혜성에 입각한 경영기법이며,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각종 기업의 기부활동, 사회봉사활동 등도 배려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dr.jameskoo@yahoo.com

독/자/간/증



박병덕 장로 빅토리아순복음교회(브라질)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중)

상파울의 삶... 교회 사찰이되다

낯선 브라질에 도착해 옷 만드는 곳에서 잠심부름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나는데 그만 주인이 옷을 잘못 만들어 팔지를 못하고 패기 처분하고 옷을 만드는 것마다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여 걱정이 태산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도 생계가 어렵게 되어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니 얽혀서 사는 우리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돈도 한 푼 없는 데 어떻게 살까 그때부터 교회 가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주일 수요예배, 예배시마다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요? 갈 때가 없네요..." 울고 오면 아이들과 안사람이 너무 불쌍하여 돌아서서 울곤 하였습니다. 도대체 눈치가 보여 살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먹고 자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교회 장로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일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없으면 그럼 저희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주무시며 계시실 수 있으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날 제직회를 마치고 나를 교회 사찰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날로 교회 집사님 3분과 함께 집으로 가서 사찰이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올라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이 3개, 응접세트가 있고 방마다 장롱과 침대, 부엌살림이 일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목사님 사택이었는데 사택을 새로 마련하고 옮기셔서 모든 가구도 그냥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장로님께서 교회 모든 열쇠함 문치를 주시며 인계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 기도

도 못하고 온 식구는 감사의 눈물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 없다. 아버지 집인걸 너는 저쪽 방 너는 이쪽 방 우리는 안방!" 그날 밤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일하고 먹고 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잘해 장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직장을 다니며 용돈을 벌며 쓰게 되었습니다. 나도 1년 무보수에서 2백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행정서무 일체를 보며 정소를 하며 열심히 쓰고 닦으며 교육관 4층 건물 짓는 관리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면포대를 모으고 돈이 될 만한 것을 모아 팔면서 4년을 있으면서 4천불을 모았습니다. 교회 교육관 개관식 있던 날 배에 미국에서 임동선 목사님이 오셔서 나를 잡고 축복 기도 하시며 "가장 큰 종은 집사님입니다"라고 하실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힘들었던 일들이 녹아 내렸습니다. 교회 출석 성도 400여명 되는 중형 교회로서 교육관을 지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로 이주

그렇게 생활을 하다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인디언 선교사님께서 도와준다고 하여 현지 빅토리아로 이주했습니다. 평일인데 교회에서 환송예배를 드려주신다고 온 400여명 성도가 모두 참석하셨는데 정착금 후원 봉투를 모두 가지고 오셔서 거두어 주시며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빅토리아는 980킬로. 버스가 약 18시간을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궁금하다. 봉투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 하며 봉투를 열자 첫 번째 봉투에 500불이 들어 있었고, 어떤 성도님은 1000불,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부서마다 마음을 담은 돈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있을 때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 물질들은 빅토리아에서 정착하며 아파트를 얻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양초사업을 시작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어서 교민회장과 교포 몇 사람이 힘을 모아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30여년을 장로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목사님을 28년째 모시고 원주민 지교회 85개와 선교사 100여명을 양성 교육하여 전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땅 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선교 3년 반

어느 날 인디언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오늘 인디언 추장 생일이니 함께 가자고 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나는 인디언이 서부 영화에서 머리에 깃털을 꽂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멋진 인디언을 보려고 기대를 가지고 선교사님 댁에 도착하였습니다. 결국 선교사님께서 나를 찾아온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은 봉사 단원을 이동수단과 생일잔치에 쓸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봉사 단원과 생일잔치에 쓸 재료를 주시며 먼저 출발하라고 해서 인디언촌에 가 생일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선교사님이 오지 않아 오던 길을 내려가 보니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고 차는 전복이 되었고 선교사님 내외분은 응급실로 실려간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두 분이 다 팔 다리가 부러져 부목으로 잡아매고 머리에는 50여 바늘로 꿰매었고 얼굴은 부어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유언하는 식으로 가느다란 음성으로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일어난 때까지 인디언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자리에서는 "나는 못합니다. 신학도 안 나오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라는 소리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네 걱정 마시고 일어나기만 하세요.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신없이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고 인디언 촌으로 가면서 허벅지를 꼬집어봐도 현실이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지만 할 수 없이 인디언 추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날부터 양초 팔아 인디언 선교를 3년 반을 하고 나니 선교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선교지에 오셔서 인계를 하고 그동안 양초기술을 봉사 대원에게 가르쳐주고 운영을 같이해온 터라 그곳을 떠나올 때 양초기계를 선교 후원으로 바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